

금주의 기도



역사의 주권자인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유혹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신실한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3월 30일 (토) 제 1724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신실한 크리스천들마저 뉴에이지 물들어

월드, 종교영역 넘어 첨단문화 아이콘으로 부상 중 보도

뉴에이지는 교묘한 비진리라는 것, 크리스천들은 잘 알고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소한 미국 크리스천들의 60% 이상은 뉴에이지 신념 몇 가지를 알 뿐더러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따라하고 있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이 신봉자들이 믿는 내용은 1)영적 에너지가 신체적/물리적 사물에 존재하고, 2)사이킥들이 미래와 3환생

(reincarnation)과 4)점성술 등에 관한 신뢰할 만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는 식의 믿음을 갖고, 실제로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수정 구슬을 한두 개씩 구입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정도다 (Magical thinking:Americans-including some churchgoers-are showing an increasing interest in New Age beliefs and practices).

뉴욕 브루클린에 소재하고 있는 수정구슬 가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문자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 바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매개체를 파는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타로카드 세일 역시 붓을 누르고 있다. 미 게임 시스템 유통업체에 따르면, 타로카드 판매는 지난 5년 동안 불황이 없었다. 같은 기간 동안 청소년들 즉 4-17세 사이 소비자들이 구입한 타로카드는 거의 10배 이상의 매출을 보였다.



뉴에이지 치유센터에서 사만이 주술을 외워서 주변의 영적 에너지(?)를 들어가게 하고 있다.

1970년부터 본색을 드러낸 뉴에이지 사상은 거의 "운동"으로까지 번져 명상, 영매를 통한 죽은 자와의 대화, 천문학, 그리고 대체 의학품 사용으로 개인적, 사회적 변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교다. 그런데 지금 뉴에이지는 첨단 유행 상품으로까지 격상돼 있다.

물론 1970년대부터 옷에 타로카드를 프린트해서 판매했지만, 할리우드 영화배우에서 우아함의 대명사인 기네스 펠로우가 운영하는 브랜드(Goop)은 아예 내놓고 수정구슬 디자인을 거침없이 사용한다. 바로 이 옷을 입으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에이지 사면들 역시 온라인을 통해 "우주적 건강"을 보

장하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뱀'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psychic vampire repellent)는 27달러로, 초차연적 공격을 막아주는 방어 스프레이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퓨리서치는 62%나 되는 미국인이 최소한 1가지 정도의 뉴에이지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더욱 더 놀라운 결과는 신실한 크리스천들-주일예배에 반드시 참석하고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역시 이러한 부류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 19%는 환생을 믿고, 33%는 심령술을 받아들일 정도다. 여

기에 신실한 크리스천 중 30% 정도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물체인 영적 구슬이나 산 안에 깃들여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카톨릭은 47%에 달할 정도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간호학과 생명윤리교수인 오 마투나는 이러한 뉴에이지 신앙의 확대는 친구나 가족이 전해주는 말에 바로 따라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즉 어떠한 검증이나 신앙적 반성 없이, "우리 사촌이 따라해 보니 또는 여동생이 사용해보니 훨씬 정신과 마음이 맑아졌대!"라는 식의 입소문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뉴에이지 '신학'은 기독교 신학과 엄연히 모순/배치된다. (3면으로 계속)

“요단강 살리기” 통해 선교사역 감당한다

CT, 창조세계 보존사역으로 선교지평 확장하는 크리스천들 소개

조엘 켈링이 요단강을 처음 본 것은 2010년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여행 때였다. 그때 그는 매우 놀랐었다. 그가 속한 그룹에는 그를 포함해서 크리스천이 둘뿐이었는데, 다른 학생들은 그 작고, 오염된 강에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기대했던 경이로움은 없었어요.” 그가 말했다. “작고, 알았고, 흉물스러웠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위대한 요단강은 전혀 아니었어요.” 켈링은 주님의 제자로서 그 강의 상태에 “이상한 책임감 같은 것을 느꼈다. “우리가 이 자원을 보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는 요르단에서 '요단강 살리기'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며,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전해준다(Can Restoring the Jordan River Build Peace in the Holy Land?:Christians explore how ecological work can support the gospel mission).

1960년대 후 급격 오염...민족갈등, 생태재앙, 정치분쟁과 연결 롬8장 모든 피조물 회복되고 번성할 땅...이것이 완전한 복음

현재 켈링은 아내 피오나와 함께 요르단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켈링은 지역 환경단체 에코피스(EcoPeace)와 함께 요단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싶어 한다. “이 강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 주민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나 정치혼란, 난민위기, 지역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나라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강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다. 1960년대 이전에 요단강의 모습은 그리스도 시대와 여러 면에서 유사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연간 유량이 분당 13억 제곱피터를 웃돌았다. “예전엔 물이 차고 넘치는 강이었어요.”에루살렘에 있는 여행 가이드 시어도어 바라라라스가 말했다. “지금은 2000-3000만 제곱피터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물방울이지요. 강이 이제 너무 협소해서 이쪽 독에서 저쪽 독으로 건너뿔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오염된 강가에 서서 이 강이 성경에 186번이나 언급된 바로 그 강임을 떠올리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다. 군데군데 지뢰가 묻혀 있는 이 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간 바로 그 강이다(수3:1-17). 1950년 이래 생물 다양성의 절반을 잃은 이 강이 엘리자와 엘리사가 좌우로 가르고 그 강이 강바닥을 밟아 건너 그 강이다(왕하 2:7-8). 생활오폐수로 오염된 이 강이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강이다(마3:13-17). 케임브리지의 루이 왕자는 최근 강에서 길어간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배설물과 대장균, 화학물질, 기타 오염 물질이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왕실의식에 사용하기 전에 그 물을 조심스럽게 청소하고 살균해야 했다.

(11면으로 계속)



3면 시론 은희곤 목사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16면 인터뷰/부여병현 목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오프믹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장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	---	--------------------------------

www.wmu.edu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상백울영광로교회)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별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게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sb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KIM Mission - 월드크리스천 무브먼트 유튜브 세미나

: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에서 보는 세계선교)

사역멘토 (KIM Ministry Mentors)

장동찬 목사 (NBC다시교회 원로목사)	김윤환 목사 (HS Ministry 대표)	박영배 목사 (CA NewLifeMission)	손찬식 목사 (SD 삼일교회)	전광성 목사 (NY와크리나교회)	김용식 목사 (상백울영광로교회)	임재량 목사 (모든 영생 크리스천대표)	김대영 목사 (역사신학연구원)
김성남 목사 (미국군목)	윤장영 목사 (LW Comm. Church)	배나베스킨 선교사 (미국군목)	김정용 박사 (메티오피어)	임이근 장로 (스페인, 리스틀라스)	최도문 박사 (지리산, 말라스)	강태원 장로 (버지니아, NJ)	이광원 장로 (IC GlobalNet, NY)
최동성 장로 (프랑스, 파리)	한두희 집사 (총신밀물산업 대표)	황정규 집사 (버지니아, NY)	손동우 박사 (버지니아, NJ)	이원구 안수집사 (신영기독교, 서울)	임재원 집사 (KBS 대표, 리로스)	임소영 자매 (한양사, NY)	강동철 집사 (버지니아, AZ)
이순권 박사 (지리산, TX)	김중대 장로 (모로코, 밀알교회)	김상익 장로 (WF, 토론토, 워싱)	윤세범 장로	최보람 권사	윤천경 권사	육진영 권사	서덕희 집사

[퍼스펙티브스 -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유튜브 동영상 강의 진행 중]

KIM Mission이 지난 17년 간 미주와 전세계 선교지 및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집중 보급해 온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미션 퍼스펙티브스 한국어 세미나)를 이제는 유튜브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youtube.com)를 방문하셔서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라고 검색하시면 모든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12과까지 35개 강의가 업로드 됨). 이 세미나를 통해 선교적인 삶으로 재현신한 우리 김 미션 동역자들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 World Christian Movement이 전 세계로 확산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던 Peter Wagner 박사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라고 외친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을 우리 삶속에서 실천하고자 자비량 선교와 자비량 헌신을 다시금 다짐합니다.

제56기, 제57기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선교지 유비쿼터스 세미나

김 미션이 오래 동안 기도해 오던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역은 유튜브 영상과 우리가 직접 제공하는 세미나 자료를 사용하여 선교 현지 선교사님께서 이 강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전략을 현지인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세미나 확산 방식입니다. 현재 중앙 아시아 무슬림 국가인 K국에서는 C 선교사님께서는 이미 현지인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며 (제56기), 우리가 오래 동안 기도해 오던 아프리카의 오지 국가 보츠와나에서도 오랜 현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인 선교사 김현모 목사님을 통해, 오는 2019년 4월 (17-20일), 보츠와나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청년들을 위한 부활절 특별 세미나를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제57기). 이번 두 세미나의 경우, 우리 김 미션은 직접 가서 강의하지 않는 대신 필요한 자료와 세미나 제작의 일부분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KIM MISSION) www.KIMMission.org
 * 연락처: 김 미션 본부 (626-354-2294), E-mail: 1020miracle@gmail.com

● 발행인 칼럼 ●

충만한 만남과 완성된 헤어짐, 플레루 안에서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지난 3주간 동안 매주 장례식이 있었다. 모두 남편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 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들이었다. 앞선 첫 장례식에서 남편을 벌써 그리워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어려운 병 수발을 정성껏 다 하셨음을 보았는데 “여보, 미안해요. 더 잘 해주지 못해서...”라고 마지막이 되니는 소리도 들었다. 두 번째 장례식에서는 남편을 사모하며 터프린 권사님의 통곡이 있었다. 그 애절한 슬픔이 모두를 숙연(肅然)케 했다. 지난해에는 46세의 가장(家長)이 아내와 딸 넷을 두고 홀연(忽然)히 떠났다. 아직은 너무 어린 아이들을 그 장례식에서 보면서 나 또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시리라” 불변의 소망을 일러주었지만 지금은 그리고 한참동안 그 아이들에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또 있었다. 그 와중(棼中) 어느 날 아침, 한 남자 분이 찾아온 것이다. 그의 아내가 떠난 지 수개월이 되었는데 그 빈자리의 아픔으로 흐느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매년 이 기간에 아무 일도 못하는 목사님과 아예 3월 한 달 온 몸이 아픈 그 목사님의 사모님을 알고 있다. 수년 전 그들의 곁을 떠난 아들이 생각나서이다. 만남과 헤어짐의 교차로(交叉路)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그렇다. 모든 만남은 언젠가의 헤어짐을 내포(內包)하고 있다. 만남에는 우연(偶然)이 없다. 모든 만남은 섭리(攝理)이다. 우연한 만남이 없듯이 우연한 끝남도 없다. 만남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 이시듯 그것을 끝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헤어짐이 필연적이라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날은 준비되어야 한다.

헤어질 그 사람의 빈자리는 내 생각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 빈자리의 서늘한 울림은 훗날 거리를 내 삶을 계속 휘감아 갈 것이다. 그 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 앞의 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자. 만남의 내용이 허접하지 않도록 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우자. 만남과 헤어짐이 크로노스(Chronos), 그저 일반적인 시간으로만 채워져서야 되겠는가. 만남과 헤어짐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카이로스(Kairos) 시간으로 채워진다면 너무 좋겠다. 아니, 만남과 헤어짐이 카이로스를 넘어 완성의 시간, 플레루(Pleroo)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충만한 만남과 완성된 헤어짐, 플레루 안에 있다. 그 언젠가 예고 없는 헤어짐이 오더라도 기약이 있고 소망이 있는 헤어짐이 되도록 플레루 안에 그대와 나의 만남을 두자.

사순절 하늘을 본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 되심, 역사 속에서 잠시 헤어질 때 그 헤어짐은 완성의 시간이였다. 충만한 만남과 완성된 헤어짐, 플레루 안에서. 성도들의 헤어짐의 애끓는 아픔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저 골고다 외침을 들으면서, 내 가슴에 꿰어올라 터진 명제(命題)이다. 명제여 삶이 되라.

모든 테러 사건은 분명히 악하다(?)

WP, 백인우월/국수주의 선동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뉴질랜드 총기난사 테러 반응 비판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사원(모스크) 2곳에서 지난 15일 최소 49명이 사망한 최악의 총격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테러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건 직전 이미지 보드 사이트 '8chan'과 트위터 등에 자신이 백인 우월주의자임을 밝히고 반이민·반이슬람 선언문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인은 범행 현장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생중계해 충격을 더했다.

그러나 이번 테러 사건 발생 후,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반응이나 사후 대책 마련이 미지근하기에, 미 언론은 “가재는 게 편”이란 속담처럼, 반이민, 백인우월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마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따라서 워싱턴포스트지는 ‘미국이 테러를 대하는 태도가 공정하지 않다(Not all terrorism is treated equally)’는 맥스 부트(Max Boot)의 칼럼을 통해 그 진위를 파헤친다.

뉴질랜드는 멀리 있는 작은 나라이고 이번 “크라이스트처치” 총기 난사의 희생자들은 저와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무슬림이었지만 저는 이번 뉴스를 접하면서 피츠버그 유대교 예배당 사건 때와 같은 역겨움을 느꼈다. 죄 없는 희생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테러리즘은 종류를



상에 “국가적 응급상황”이라는 제목을 달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을 정도다. 그 전날은 극우매체 ‘브레이트바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무력을 과시하며 좌파 평론가들을 위협하는 듯 한 말을 한 인터뷰를 실었다. ‘크라이스트처치’ 용의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정적수립자

“가재는 게 편” (?)...미국 발칸화, 불관용 선동 주장

불문하고 모두 끔찍하다. 피부색이나 민족, 성 정체성, 종교로 희생자를 고르는 종류는 특히 악랄하기만 하다. 이런 종류의 공격은 인류 역사에서 유례가 깊은 혐오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30년 전쟁과 나치 홀로코스트, 스페인 내전과 인종학살을 낳은 혐오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중요범죄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인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공격에 집중해왔다. 9.11테러는 유례없이 큰 사건이었고,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된 테러 사건, IS의 인종청소 등을 생각하면 일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카불과 바그다드에서 뿐 아니라 파리와 올랜도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공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폭력 때문에 극우 테러 리스크의 위협이 묻혀서는 안 된다. 9.11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사건이었지만, 바로 다음은 1995년 티모시 맥베이에 의한 오클라호마시티 연방 청사 폭탄테러였다. 유대인 차별철폐 운동단체인 반-명예훼손 리그(Anti-Defamation League)에 의하면, 지난 10년 간 미국에서 일어난 427건의 극단주의자 관련 살해사건 중 극우주의자가 범인인 경우가 70% 이상이다. 극

좌파나 국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일으킨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지난달 진보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계획하던 해안경비대원 크리스토퍼 해슨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극우주의자에 의한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늘어났을지 모르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미국정부는 극우파에 의한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폐지했다. 우리가 이슬람교도에 의한 폭력과 마주할 때, 우리는 범인뿐 아니라 네트워크에 초점을 둔다. 최근 서구에서 일어난 공격 중 다수는 떠나면 곳의 IS로부터 부추김을 받고 극단화된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가 주범이었다. 무슬림 커뮤니티 내의 극단주의자들에게 포섭된 경우도 있었다. 우리는 극우파 테러리스트들과 그들의 동기, 주변을 바라볼 때도 같은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 ‘크라이스트처치’ 용의자의 슬로건은 백인우월주의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거대한 대체(The Great Replacement)”다. 그는 대규모 이민과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률로 인해 유럽인들이 문화적, 인종적으로 완전히 대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동기로 2017년 스웨덴에서 일어난 IS 관련 트럭 공격으로 어린 소녀가 숨진 사건, 2017년 마린 르 펜의 프랑스

대선 패배와 무슬림 이민자들의 “프랑스 침략” 등을 꼽았다. 앞뒤가 맞지 않는 범행 목적 리스트에는 “정치, 문화, 인종적 전선을 따라 미국을 발칸화 시킬 내전을 촉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어딘가 익숙한 이야기가 아닌가? 공화당 소속 아이오와 주 상원의원 스티브 킹은 “거대한 대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이었던 스티븐 배넌은 비백인 이민자들이 점령한 프랑스를 소재로 한 인종차별적 프랑스 소설에 경의를 표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르 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이슬람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한 바 있으며, 백인우월주의 시위대에 대해 “아주 반듯한 사람들”이라고 칭하기도 했으며, 불법 이민자들의 “침략”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주 목요일에는 백악관이 어린이가 포함된 밀입국자들이 국경을 건너는 영

와 리더로서 지지하지 않지만 “새로운 백인 정체성과 공동 목표의 상징”으로서 지지한다고 말한 것은 충격적이다. 피츠버그 총기 난사범 역시 트럼프가 유대인과 이민자들에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뉴질랜드 테러사건을 비판하면서도 그 동기가 된 반-이슬람 정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무슬림이 범인인 테러 때마다 “이슬람 극단주의”를 구체적으로 비판하던 모습과 사뭇 다른 태도다. 결론으로, ‘크라이스트처치’ 나 피츠버그에서 일어난 일을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쥔 자리에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그는 미국을 발칸화시켰고 불관용을 선동했다. 미국 대통령은 진즉에 자신의 수사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돈을 낮추어야 했다. 잘못된 언어는 끔찍한 행동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674-7982(대표) (323)665-0009(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 (718)886-0074(대표)
E-mail: nyk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www.rptseast.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부합하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학 과 ○

대 학 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학 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내 아들은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뉴스위크,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로 탈출한 어느 미망인의 육성 증언 보도

베네수엘라를 혼돈에 빠뜨린 위기가 갈수록 더 깊어진다. 초 인플레이션과 기아, 범죄와 질병, 죽음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베네수엘라인 수백만 명이 필사적인 탈출 길에 올랐다.

아나 카리나 팔라치오는 지난해 그들 중 한 명이었다.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자 그녀는 딸을 임신한 상태로 어린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났다. 그녀는 유엔과 연계된 국제이주기구(IOM)의 도움으로 콜롬비아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현재 그녀는 베네수엘라 국경에 인접해 있는 콜롬비아 북동부 노르테데산탄데르 주의 비야 델 로사리오에 설치된 이주자 임시 지원센터에 머물며 주택과 일자리, 생후 6개월 된 딸과 두 살 먹은 아들의 돌보미를 구하는 중이다.

다음은 그녀가 콜롬비아에서 인터넷전화 스카이프를 통해 뉴스위크의 제시카 쾡 기자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스페인어로 말한 그녀의 육성 증언을 그대로 옮겼다 (Venezuelan Migrant on Fleeing Crisis: I Hope Juan Guaid Brings Change and 'It Truly Comes From the Heart').

콜롬비아로 떠나면서 베네수엘라 밖으로 처음 나갔다. 그동안 내가 살던 아라과 주나 마라카이 시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떠나기 싫었지만 그곳에서 더는 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라카이에서 내일과 눈썹을 관리하는 스타일리스트였는데 그 일자리를 잃었다. 대다수가 실업자가 되면서 삶은 생존에 필요한 먹거리를 찾는 문제로 변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줄을 서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고기를 구할 수 없어서 하루 세끼 채소만 먹었다. 매일 줄을 서야 했다. 그나마 배급이 점차 줄어들더니 완전히 사라졌다. 아들이 병이 났지만 의사가 만나주지도 않았다. 약이 없기 때문이었다. 약이 있다고 해도 너무 비싸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딸을 임신한 나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베네수엘라를 탈출했다.

험난한 길이었다. 버스 안에서 난 완전히 겁에 질렸다. 콜롬비아 당국이 들여보

내 줄지 너무 걱정됐다. 통행 카드를 갖고 있었지만 너무 불안해 곧 죽을 것 같았다. 다행히 우리는 문제 없이 콜롬비아에 입국할 수 있었다. 감격스럽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했다. 곁에 남자 없이도 베네수엘라를 벗어날 수 있었기에 기뻐지만 그곳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고 누군가 나쁜 의도로 접근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초조하고 불안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다. 그는 심리학자였다. 그의 도움으로 우리는 콜롬비아에 정착할 수 있었다. 나는 돈 한 푼은 물론 갈아입을 옷도 없이 콜롬비아에 도착했다. 지금은 이주자를 위한 임시 지원센터에서 지낸다. 집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곳은 아주 편안하다. 마음이 많

이 진정됐다. 음식도 충분하고 이곳 직원들은 우리가 형제자매인 것처럼 모든 애로 사항에 신경 써준다.

콜롬비아에도 사람이 많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를 따듯이 맞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내밀며 “이리로 오세요. 여기서 식사하세요. 무엇이 필요한가요? 샤워는 했어요?”라고 다정스럽게 말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아니다. 나는 난민지원에 반대한다. 나는 베네수엘라인이 우리나라에 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었을 때 나는 어린 소녀로 공부만 했지 정치는 몰랐다. 물론 니콜라스 마두로가 그의 후임으로 대통령에 올랐을 때 난 여러 이유에서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일자리도 없었고 단지 먹기 위해 허구한 날 줄을 서서 배급받아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마두로 대통령이 완전히 몰락한 건 아니지만 이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서방에서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가 베네수엘라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진심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상황이 바뀌면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좋은 일자리를 얻고 이 나라에 적응하면 귀국할 생각이 없어지지 모른다. 미국 이주를 생각했느냐고? 당연히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콜롬비아에 올 때도 그랬지만 미국에 가려다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너무 행복에 겨워서 말이다.

나는 아들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임시방편이며 머지않아 지나갈 것이라고 일러준다. 난 아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독려한다. 우리 아들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과 딸이 미래를 마음껏 꿈꾸고 미국으로 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 그러면 언젠가 그들이 나를 미국으로 데려가지 않을까 싶다.

(1면에서 계속)

뉴에이지 신관은 신은 모든 것 속에 존재하는 힘(a force)이라는 범신론(pantheism)이고, 모든 영적인 길은 신에게 이끌리기 마련이라는 원이즘(oneism), 세계 안에는 선악을 저울질해 균형을 맞추는 힘이 있다는 신앙인 카르마(karma), 사람은 본성적으로 신적(divine)이라는 주장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뉴에이지는 미국에서는 단순히 종교적 차원에서만 멈추고 있지 않고, 패션 아이콘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는 양상이다.

서점마다 뉴에이지 섹션이 따로 있어 명상이나 수정구슬 점보기, '고등의식' 계발, '영의 가이드'와 어떻게 접촉하느냐는 등에 관한 뉴에이지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나돌고, 소설이나 영화 등에도 초인사상이나 신화 등 뉴에이지 관련 사상이 판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2018년 영화감상

사이트 '넷플릭스'는 '십대녀 사비나' 완판시리즈를 내보냈다. 여기에는 주술과 마법, 악령출현 등이 고루 포함돼 있다. 또 화장품회사 '세포라'는 어린 소녀들을 마녀로 만들기 위한 수정구, 현인카드와 타로카드 등의 키트(세트)를 곧 내놓았다.

음악의 경우 뉴에이지는 하나의 대중적 음악 장르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특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침체될수록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자연을 노래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뉴에이지 경향의 음악들에 더욱 매료된다고 한다.

인기 TV 드라마나 CF에서는 뉴에이지 계열의 음악들이 자주 애용되고 영화에서는 유행, 영혼 등 점진주의나 영매 사상을 담은 내용이나 ET 이후 외계인들과의 접촉, 투쟁을 그리거나 신적 존재로서의 외계인에 대한 묘사 등이 SF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쏟아졌다. 컴퓨터 게임에서

는 우주를 배경으로 외계 종족간의 전투를 벌이거나 신들의 전쟁을 모티브로 하는 것들이 셀 수 없을 정도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뉴에이지적인 경향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나 음반 등을 교인들에게 대여하거나 권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결국 뉴에이지는 이제 사람들의 입소문을 벗어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매체들을 통해 교묘하고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분석과 대처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제 교회의 대처는 뉴에이지를 비롯한 신영성 운동이 신앙에 해악을 미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즉 음악, 영화, 미술, 영상 매체, 인터넷, 컴퓨터 게임 등등 각 분야별로 신앙에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교인들에게 지침을 마련해주는 구체적인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시론

집중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옛날 어느 왕국, 축제가 한창인 거리에서 한 청년이 술이 담긴 잔을 조심스럽게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청년의 등 뒤에, 칼을 뽑아 든 병사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성대한 축제를 치르는 거리에는 화려한 볼거리와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청년은 어디에도 눈길을 주지 않고 술잔에 담겨 있는 포도주만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청년이 조금 발을 헛디디자 술잔의 포도주가 넘칠 듯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러자 뒤따르던 병사가 칼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너의 술잔에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왕이 명령하신 대로 칼로 벨 것이다." 청년은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하며 다시 걸었습니다. 축제를 즐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특이한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청년은 아무 것도 쳐다보지 않고 그저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걸기만 했습니다. 청년이 시내 중심의 광장에 다다르자 그곳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왕 앞에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전하, 술잔의 포도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시내를 가로질러 왔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왕은 청년이 들고 온 술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나온 거리는 축제가 한창이었는데, 너는 거리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청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왕은 청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제주를 넘는 광대도, 신기한 동물들도 보지 못한 것이냐?" 청년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직 술잔에만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껄껄 웃으며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 '집중'이 너의 성공에 꼭 필요한 비결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든 집중한다면 어떤 유혹에도 지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왕에게 인생의 성공을 묻는 어느 청년에게 주는 왕의 대답은 "집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면 하루에 5-6만 가지 잡,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오만가지 생각을 다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생존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순례의 길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집중"입니다.

노란 빈센트 필 목사가님 이후유에 걸쳐서 잘 아는 친구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그를 가만히 진찰하더니 "자네, 무슨 걱정은 일이라도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답변하기를, "목사가 무슨 다른 걱정이 있겠는가, 그저 늘 설교 준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 다음 주일이면 내가 무슨 말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까, 또 심방 가서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걱정이 늘 나를 항상 괴롭힌다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 의사는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가진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당시 친구로부터 그 말을 들은 노란 빈센트 필 목사가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사람이기에, 겪어야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현실적 문제 앞에서 2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인생의 문제에 집중하면 그만큼 문제와 가까워지게 되고 그만큼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문제가 불력해져서 문제에서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문제에 놀리고 끌려 다닙니다. 항상 문제만 말하게 됩니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9면으로 계속)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위임 예배



안 환 목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PCA 한인 서남노회 소속 인랜드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 위임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9년 3월 31일 (주일) 오후 4:30

장소 인랜드교회 본당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909-622-9681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넘어지는 연습

얼마전 페이스북에서 '넘어지는 연습'이란 동영상 보았습니다. 동영상의 주인공은 어릴 때 소아마비로 전신마비가 된 정형섭 선교사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목발을 짚고서도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처음 목발을 짚기 시작할 때에 그의 부모

님이 그에게 서서 걷는 연습보다 넘어지는 연습을 먼저 시켰다고 합니다. 방바닥에 이불을 깔아 놓고 수 백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넘어져도 안 다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연습을 시

켰습니다. 그가 장애인으로 인생을 살면서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치지 않았기에 다시 일어서는 법 또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넘어지는 훈련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연습이 아니라 실패하는 연습, 실수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실패하는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악이 도전해 옵니다. 참 억울할 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가지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한 번도 넘

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초등학교를 두 번 다녔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1093개의 특허를 내기 전까지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발견하기 전까지 조너스 소크는 200번 이상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1330번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은 농구 커리어를 통틀어 9000개 이상의 슈트를 실패했습니다. 69세 차사순 할머니는 무려 950번의 실패 끝에 운전 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도 넘어짐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힘이 장사였던 삼손,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만들었던 다윗 왕... 권력에

눈이 멀었던 압살롬,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게하시, 두려워서 물에 빠지고 배신까지 했던 베드로 등등 성경의 인물들 중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삼손, 베드로처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과 압살롬이나 게하시처럼 넘어져서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긴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호와와는 내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가. 여호와께서 내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시 118:6-7).

성경은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법에 대하여는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편임을 기억할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임을 확인하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말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면 잘 넘어질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는 연습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푸/른/초/장

강원근 목사
(뉴욕감리교회)



1. 들어가는 말: 규범과 표준의 전쟁

오늘날 전세계를 조망해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현상 중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입니다. 이 무역분쟁 때문에 전세계가 긴장하고 있고 올해의 세계경제 또 우리들의 서민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무역분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전쟁은 인권, 정치체제, 군사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어서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미국은 1950년부터 1980년대까지 소련으로부터는 군사적 도전, 일본과 독일로부터는 경제적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도전들을 뿌리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고 거세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결국 '규범과 질서'의 경쟁입니다. 미국의 규범과 질서가 전 세계의 규범과 질서가 되느냐, 아니면 중국의 규범과 질서가 되느냐의 문제를 두고서 치열하게 다투는 것입니다. 그간 세상은 3번에 걸쳐서 전세계를 통일할 만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칼 막스가 '국가'보다는 '계급'을 통해서 전 세계의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소련이 붕괴함으로써 실패가 증명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이란혁명으로 대표되는 '종교'를 통한 세계화입니다. 1979년 압둘라 호메이니에 의해 주도된 이란혁명은 세계인들이 '국가'보다는 '종교'를 충성의 대상으로 생각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금융과 무역의 자유화 그리고 정보화를 통한 세계화 현상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세계화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의 세계화 현상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세계화 자체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대로 세계화가 점점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요한계시록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는 정치/경제적으로 통일된 세상의 정치 지도자이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으로 통일된 세상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표면적으로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

가운데서도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구원과 진리의 주체로 믿고 따르는 세력들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력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큰 충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똑바로 깨어서 그 무엇보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의 존재를 꼭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인 고린도후서 10:5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거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그 어떤 위대한 사상과 철학도 인간의 그 어떠한 엄청난 정치, 경제, 군사적인 힘도 예수 그리

로 전개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만큼 릴케의 사교의 무게가 묵직하다는 것입니다. 릴케의 어머니는 첫 번째로 얻은 딸에 대한 집착이 컸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자식이 바로 릴케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죽은 딸에 대한 집착 때문에 릴케가 8살이 될 때까지 여자 옷을 입히며, 거의 여자 아이로 키웠다고 합니다. 이런 릴케가 청년이 되어 독일 뮌헨에서 잠시 살다가 살로메라는 러시아 여인에게 감화를 받아서 러시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2번에 걸쳐서 러시아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을 통해서 그의 인생

이 얇은 삶에서 깊은 삶으로 변화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시베리아의 대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의 지문이 그대로 남아 있는 자연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슬라브 민족의 엄청난 가난한 삶을 보면서 왜 그들이 불과 같은 보드카를 마시고, 쉬지 않고 몸을 바르르 떠는 발레 같은 것을 해야 하며,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을 들으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인간의 가난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는 러시아에서 톨스토이를 만났으며 한 인간의 정신이 얼마만큼 위대해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정신조차도 결국은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검은 장막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연애는 그만두고, 오직 신과 가난과 죽음만 말하리라. 얇은 삶을 떠나, 깊은 삶으로 들어가리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22-23, 마지막 날에 누가 우리를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심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기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 예수도 똑 같이 공경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35-36, 온 우주 만물이 지금 누구의 손 위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믿는 순간 나와 여러분의 세계가 그 차원이 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2. 릴케: 얇은 삶, 깊은 삶, 가장 깊은 삶

오스트리아의 시인으로서 20세기 최고의 독일어권 시인이자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 1875-1926)입니다. 독일어로 출판된 철학서적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든 책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데거가 자신의 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철학이라는 것은 릴케가 시적으로 말한 것을 좀 더 구체적인

로 전개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만큼 릴케의 사교의 무게가 묵직하다는 것입니다.

릴케의 어머니는 첫 번째로 얻은 딸에 대한 집착이 컸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자식이 바로 릴케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죽은 딸에 대한 집착 때문에 릴케가 8살이 될 때까지 여자 옷을 입히며, 거의 여자 아이로 키웠다고 합니다. 이런 릴케가 청년이 되어 독일 뮌헨에서 잠시 살다가 살로메라는 러시아 여인에게 감화를 받아서 러시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2번에 걸쳐서 러시아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을 통해서 그의 인생

이 얇은 삶에서 깊은 삶으로 변화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시베리아의 대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의 지문이 그대로 남아 있는 자연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슬라브 민족의 엄청난 가난한 삶을 보면서 왜 그들이 불과 같은 보드카를 마시고, 쉬지 않고 몸을 바르르 떠는 발레 같은 것을 해야 하며,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을 들으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인간의 가난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는 러시아에서 톨스토이를 만났으며 한 인간의 정신이 얼마만큼 위대해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정신조차도 결국은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검은 장막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연애는 그만두고, 오직 신과 가난과 죽음만 말하리라. 얇은 삶을 떠나, 깊은 삶으로 들어가리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3.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얇은 삶, 깊은 삶, 더 깊은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까? 우리의 삶 또 얇은 삶, 깊은 삶, 그리고 더 깊은 삶이 3가지의 삶 중에서 어떤 한 유형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위치에 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우리는 이 3가지 유형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이 채워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이 나서 그것을 간증합니다. 이것이 바로 릴케가 말한 깊은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바로 여기에서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의 인생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눅5:11)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베드로가 깊은 곳에서 잡은 고기를 먹었습니까? 본문에 따르면 베드로는 그의 배를 육지에 대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벌어진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인식하도록 도왔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그 기적의 결과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릴케가 말한 "가장 깊은 삶"입니다.

4. 가장 깊은 삶: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삶-바울의 "예수, 예수, 예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 잡혔다는 말입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이 순교한 장소에 '트레 폰타나'(Tre Fontana)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바울은 참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이 베이고 나서, 그 목이 바다에 세 번 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이 튀자 리마다 물이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도원

을 짓고 그 수도원 이름을 "3개의 분수"라는 뜻으로 '트레 폰타나'(Tre Fontana)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의 목이 땅에 떨어진 후 피가 나왔는데, 그 피가 "예수, 예수, 예수"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창세기 4:10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4:10에서는 하나님께서 동생을 살인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죽은 자가 마지막 소리로 호소하고 싶어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 소리가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죽어서 그 자신의 피를 통하여 "예수, 예수, 예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 안에 내 핏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

5. 주기도문: 충성하는 자가 있어야 권세가 세워지니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나라에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을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르는 자들이 없는 왕이나 대통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따르는 자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왕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6. 곱셈의 인생으로 발전해 가는 삶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은 덧셈의 인생이 아니라 곱셈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1+1=2입니다. 즉, 한 존재가 한 존재를 그저 만나서,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두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만남은 영어로 meet, encounter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는 만남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만남은 이런 만남이 아닙니다. 나와 예수님의 만남은 곱셈의 만남입니다. 1x1=1입니다. 이것은 두 존재가 만났는데, 그 두 존재가 완전히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나의 존재와 예수의 존재가 만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5:5, 내 삶에 기적 같은 축복의 삶이 펼쳐지고, 사일이 잘되고, 건강하고, 목회기 형통하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에 있지 않으면, 오로지 예수만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기적해야 깊은 삶에 머물 뿐 가장 깊은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흥해 바다가 갈라지는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한 충성을 드리며, 그 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발전해 가야할 줄로 믿습니다.

7. 결론: 타인을 향해서도 가장 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우리는 가장 깊은 삶을 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가장 깊은 삶을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1886년 톨스토이가 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위대한 소설에서 죽음을 선고받은 이반 일리치를 찾아온 가족과 동료들의 모습을 보며, 만약 이것이 인생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할까? 나를 위해 살고 죽는, 진리 가운데서 정말 함께 가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기쁨 것입니다. 그 진실한 한 사람을 얻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깊은 삶에서 가장 깊은 삶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을 향해서는 오직 예수께 충성하십시오. 가장 깊은 삶을 살아가고, 땅을 향해서는 함께 하는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장 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초 긴급! 캘리포니아 미성년 성범죄자(소아성애자) 보호법 발의되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동성애 의회에 있는 두 민주당원들이 드디어 그들이 수년 동안 준비하고 right timing만 기다리던 법안을 발의안으로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소아성애자를 "정상인"으로 취급해주는 문을 열어주는 첫 번째 법안이며 우리 자녀들 바로 앞에 소아성애자들이 나타나도 모르도록 그들의 정체를 숨겨주는 법안입니다. 이 발의안은 이미 모든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 상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폭행한 소아성애자가 "중범죄도 소아성애자"도 아니라고 규정짓는 것이 목적입니다.

SB145의 경우
SB145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Scott Wiener(민주당, SF)와 하원의원 Susan Eggman(민주당, Stockton)가 발의했으며, 이들의 목적은 LGBT(성소수자)의 성범죄자 자동 등록(auto registry)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당연히 법적으로 등록해야 할 사람들을 피해자가 이들을 고발하여 성범죄자로 등록이 되어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매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아성애자, 성범죄인이 피해자에 의해 발각시 캘리포니아 SB145 법안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성범죄자 등록을 막게 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SB145 법안은 25살 성인이 15살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범죄자로 자동 등록되지 않으며, 이와 같이 이는 22살이 12살을, 19살의 9살을 향한 범죄에도 성범죄자로 기록되지 않도록 쓰일 수 있는 것이지요.

캘리포니아 기존 법안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동안 "Sex Offender - 성폭행자, 소아성애자들"에 대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안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기존법안은 적어도 Sex offender를 비롯한 소아성애자(Pedophilia)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법안이 존재하였습니다. 자기 동네에 혹시라도 성폭행자, 소아성애자가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면 누구든 온라인에 가서 금방 시(city)에 등록된 성폭행, 소아성애자들의 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존재하고 있는(existing law) 법안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A willful failure to register, as required by the act, is a misdemeanor or felony, depending on the underlying offense - 만일 성폭행(소아성애자들)자들이 주정부의 법을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취급된다".

하지만 기존법안에는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성범죄자로 걸리지만, 그 성범죄자는 "성범죄자"라는 등록을 하지 않게 되어있기에 여전히 좋지 않은 법안입니다.

또한, 레즈비언 성행위를 미성년자에게 취한 소아성애(레즈비언)자는 나이 차이가 얼만큼 나든지 상관없이 성범죄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아성애자들과 성경범죄, 중범죄인들을 감춰주는 SB145 발의안의 목적!

결론적으로 SB 145법안은 미성년 아동들과의 성적 관계를 목표로 한 성범죄자들, 즉 소아성애자들이 어리게는 8세 어린이를 교섭 성관계를 가져도 어린이가 자신이 될 동의하는지 몰라도 "동의"만 했으면 어린이를 성적으로



CA의 "LGBT Caucus:동성애 의회 민주당원"들(왼쪽 사진에서 키 큰 사람이 SB145 발의한 Scott Wiener, Susan Eggman은 오른쪽 사진 왼쪽 뒤에)

할 경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자 등록도 자동적으로 안 되기에 이들의 이력은 깨끗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자녀들을 가진 학부모들은 이들이 자녀들 가까이 와도 막을 길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 사악한 것은 SB145는 유죄 성립시 성범죄자의 나이가 피해자와 10년 이하로 차이가 날 경우,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일지라도 성범죄자 자동 등록을 막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자의 성적 취향(이성애/동성애)에 대한 구분 없는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SB145는 주로 게이 성관계로 알려진 항문성관계나 구강성관계를 가진 자들의 "성관계"를 정상화 시키며 그런 성관계를 10세 미만 나이 차이가 나는 미성년자와 가졌을 경우에도 이런 게이동성애자들은 "소아성애자"로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학

이 법안의 통과시 이로 인해 성범죄자로서의 기록이 남지 않아 그들의 캘리포니아 내 주거위치를 알 수 없고,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활발해져 미성년들을 성범죄에 더욱 취약하게 할 소지가 다분히 높다는 점에 우리 학부모와 목회자 우리 모두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막기 위한 ACTION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 단체

는 미국 단체들과 협력중입니다. 이 발의안은 4월 9일 상원의원에서 히어링(Hearing)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영적 전령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게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매우 반기독교적인 정치인의 전력을 보여주었기에, 이 발의안이 법안이 되는 것에는 큰 지지를 보여줄 주지사에게 Gavin Newsome에게까지 가지 못하도록 꼭 기도해주세요.

이 발의안이 법안이 되는 것을 스탱(STOP) 시키는 것에 함께 Action을 취하실 분들은 tvnext.org@gmail.com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이 사악한 법안을 스탱 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나누겠습니다.

Facebook이 있으신 분들은 Tvnext.org를 찾으시면 그 외 우리 자녀들에게 위협되는 사회 이슈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성경공부 리더로 요한일서를 그룹리더로 인도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즉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였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대표적인 이단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팔로스버디스 김 권사

A: 좋은 질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의 한 인격 혹은 위(位)에 신인(神人) 양성이 있다는 문제에 관해서 신학적 논쟁이 많았고 이단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단은 주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이단은 2세기의 에비온파(Ebionism)로서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의 신성과 선재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Arius AD336)는 예수의 신성은 하나님과 유사하나 동질(同質, Homoousian)은 아니고 유사(類似, homoiousian)하다면서 이 아리우스 이단은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아니요, 반면에 사람도 아닌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위치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초대 교회에 그노시스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육체는 도깨비파, 말시온파, 그노시스파, 마니교, 아폴리네리안파 등 예수님 인성 부인

전적으로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와서(골2:8, 20)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단자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온 실제적 인물이 아니라 어떤 매개적인 형태의 탈을 쓰고 성육 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가 1세기의 도케테파(Docetism)입니다. 도케테파는 도케오(to seem, to appear 보여진다, 나타난다)란 헬라어 동사에서 인출된 명칭입니다. 이 이단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고 다만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류와 같은 환영(幻影)이라는 것입니다. 1세기 후반 말시온(Marcion)파, 2세기의 그노시스(Gnostic)파, 3세기의 마니교(Manichees)는 주장하기를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사람이 아니라 헬라의 신화에서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뿐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적 실체의 실제성 즉 인성을 부인하였습니다. 2세기의 그노시스주의의 한 형태인 도케테파는 예수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하면서 인성은 부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은 고유적으로 악하다는 헬라인들의 이원론적 철학사상에 기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육신의 개념은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영과 육신의 직접적인 접촉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성인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이러한 사상을 이단으로 정죄하였고(요일 4:1-3) 2세기 초 익나시우스와 이레니우스도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도케테파의 이단설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4세기의 젊은 아폴로나리스(Apollinaris)는 아리안주의의 그리스도의 신성의 완전성 부인에 강력히 반대한 나머지 그 반동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의 완전성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르치기를 그리스도는 신체는 가지고 있으나 그 신체는 어떤 방식으로 승화되어 거의 사람의 신체가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아폴리네리안파는 도케테파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실제상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단설은 AD 381년 콘스탄티노플회의(The council Constantinople)에서 정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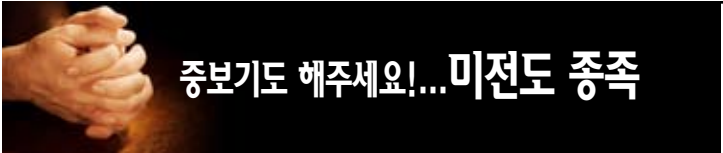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오스의 브라오(BRAO)



약 만5천명 정도의 브라오(Brao)족들은 라오스 남부의 기름진 볼로벤(Boloven) 평야 지대에 거주한다. 이 고원은 해발 약 3,500피트에 위치하며, 한때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 그러나 내전과 불편한 교통, 농작물 질병 등으로 커피, 면화, 담배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브라오족의 조상은 9-13세기까지 흥왕했던 대 크메르 제국(Great Khmer Empire)의

국민들이었다. 번성기의 크메르제국은 오늘날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일부를 포함하는 대(大) 제국이었으나, 타이족과 베트남인들의 침입 후에 쇠퇴했다. 앙코르(Angkor)로 알려진 캄보디아 왕국의 중심은 볼로벤(Boloven) 지역이었는데, 현재에도 8-12세기 때의 유물과 유적들이 이 지역에 남아있다. 근래까지도 라오스는 다른 국가들과의 전쟁터가 됐고, 중국, 러시아, 베트남이 라오스를 놓고 정치적으로 경쟁해왔다. 일부 브라오족은 태국 북동부의 핑지로 이주하기도 했다.

삶의 모습

브라오족 대부분은 화전농법을 이용해 쌀농사를 짓는 농부들이다. 브라오족이 사는 곳은 잡곡과 키가 큰 풀로 덮인 지역이 많은데, 일단 초목을 태워 땅을 깨끗하게 한 다음 그 땅에서 3-4년 동안 농작물을 재배한다. 이후에는 다시 새로운 땅을 찾아 이동한다. 주된 농작물은 쌀(dry rice)이나, 카사바, 고구마, 바나나 등도 많이 키운다. 브라오족은 이런 식품들 외에도 생선류로 단백질을 섭취한다.

브라오 족은 농사를 짓는 것 이외에도 시장에서 판매할만한 많은 것들을 숲에서 채집한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방대한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는데 야생 대추야자, 마호가니, 티크, 자탄 등과 같은 단단한 목재나무들이 서식하며 딸기류, 콩, 고무나무 등도 있다. 브라오족의 부업으로는 도기류 제작과 같은 공예와 수공업

활동이 있다.

내전으로 인해, 건기 동안은 대규모에 방어진이 갖춰진 촌락에서 생활한다. 각 촌락은 독립적 단위로, 마을의 어른이나 수장이 각 마을을 다스린다. 마을의 수장은 마을 공동체의 일을 두루 살피며, 분쟁을 다스리고, 마을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한다. 그 외엔 특별히 조직을 갖춘 정치적 권력은 없다. 부족민들이 라오스의 국민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에 특별한 대표단을 구성하지는 못했다.

촌락민들이 함께 쓰는 큰 집을 가운데 중심에 놓고 다른 오두막들이 마치 바퀴의 살처럼 원형으로 배치된다. 평화스러운 기간 동안은 큰 마을이 5개에서 10개의 작은 촌락으로 나뉘고, 임시 거처로 삼아 자신들의 땅을 경작하면서 추수철이 올 때까지 그 곳에서 생활한다. 브라오 사회는 기본

적으로 가부장적 사회이며, 가정 지도권은 가족 중에 가장 나이 많은 남성이 갖는다. 또한 브라오족 사회에는 일부다처가 성행한다.

신앙

브라오족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종족들이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브라오족은 토속신앙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다. 이들의 종교의식에는 정령 숭배와 조상숭배의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다. 마을의 종교적 성직자는 여러 가지 다른 영혼을 모시는 제사를 맡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면서, 그런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 촌락 공동체를 다스린다.

필요로 하는 것들

라오스의 경제는 농업 의존적이다. 베트남전과 1975-79년 실행된 마르크스 경제학의 실패, 기술자들의 해외도피 등

의 문제들로 라오스는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다. 그러나 만약 적절한 교통 수단, 노동력, 기술력개발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볼로벤 고원지대의 부족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비옥한 땅에서 농작물은 매우 풍작을 이룰 것이며, 매장된 알루미늄과 보크사이트를 채굴할 수 있고 수력발전소의 건설도 가능하다. 이러한 잠재된 자원의 발전을 위해서 라오스 정부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브라오족은 전쟁의 상처가 깊은 종족이어서 정서적인 치료와 영적인 소망이 필요하다. 현재 3개의 선교단체가 이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으나, 브라오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거의 없다. 브라오족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꾼들과, 전도용 자료들, 중보기도 등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트럼프 "대학들, 표현의 자유 보장 안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학들이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free speech)를 보장하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21일 서명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수백억 달러를 세금으로 지원받는 대학 중 다수가 표현의 자유 및 수정헌법 제1조를 적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받기를 원하는 대학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지, 억눌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공공 교육기관들이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대학이 (학생들의) 입을 막는다면, 우리는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공립대학들은 연간 350억 달러가 넘는 교육·연구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 공립대학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12개 연방 정부기관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사상 교환이나 표현의 자유 등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관련 규정을 잘 지키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 행정명령은 공립대학에 한정되며, 사립대학들은 자체 기준에 맞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행정명령까지 발표하며 지키려는 이유는 대학 내 보수적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묵살되고 있다는 보수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AP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이 행정명령을 구상하고 있다고 처음 밝히며 지난달 19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UC버클리) 캠퍼스에서 보수단체 '터닝 포인츠 USA' 회원 모임을 돕던 헤이든 윌리엄스(26)가 폭행을 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 사건을 상기하며 윌리엄스가 심하게 폭행을 당했지만 "굴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에는 낙태 반대 등의 신념을 밝히다 학교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다수 참여했다.

버지니아주의 기독교계 교육기관 리버티 대학 등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지지를 보낸 가운데, 미 주립대학교협회(AASCU)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공립대학들이 이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의무를 한치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연방정부의 지원은 의회에서 제정된 현행법을 통해 논할 문제이지, '백악관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트윗으로 대북추가 제재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기류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는 "대



북 추가 제재를 철회했다"면서 북한을 다독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교감하는 방식 해결에 기대를 걸며 공개적으로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촉발된 롤러코스터 같은 갈등 국면이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 철회를 알리기 위해 올린 트위터 글은 의문투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숏문을 켜 오는 로버트 무러 특별감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보고서 파장을 염두에 두고 '북한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대북 유화책을 펼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대북 압박을 느슨하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이 23일 고개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 글을 통해 재무부의 대규모 추가 대북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려는 미 정부의 움직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은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단독 플레이'이자 '트럼프식 돌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트위터 글은 북·미 양측이 강권치를 교환하는 약속을 끊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지책으로 보인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포착되자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제재를 가했다. 여기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미 대화는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퍼져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토크다운 방식의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면서 한반도 긴장은 많이 누그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번 트위터 글은 많은 혼란을 낳았다. 일단 사실 관계부터 맞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의 추가 제재가 22일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그 날 어떤 제재도 발표되지 않았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재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미 정부 내에서 대혼돈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허를 찔렸다"고 말했다.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는 입장을 밝히지 못했고, 국방부는 "백악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고 CNBC방송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추가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역시 모호한 언급만 해 혼란은 더욱 증폭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 최대 압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미국 정부의 구상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미국과학자연맹의 애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이번 트위터 글은 다른 나라들에 대북 압박 정책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그들(북한)에게 우리의 전술이 먹히고 있다는 것을 입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는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하노이 회담 이후 벽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쿠르드 민병대 'IS, 지도에서 사라졌다'

미국과 함께 이슬람국가(IS) 격퇴에 앞장서 온 쿠르드족 계열 민병대 시리아민주군(SDF)이 23일 IS 완전



격퇴를 공식 선언했다. 미군이 2014년 6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으로 IS 격퇴 작전을 시작한 지 4년9개월 만이다.

무스타파 발리 SDF 대변인은 "SDF가 이른바 칼리프국(이슬람 신정일치 국가)을 완전히 제거하고 ISIS(IS의 옛 명칭) 영토를 100% 빼앗았다"며 "이 특별한 날 승리를 가능케 한 수천명의 순교자를 기린다"고 밝혔다. SDF는 22일 밤늦게 IS의 최후 거점인 시리아 동부 바구즈 마을에 공세를 퍼붓기 시작해 다음 날 새벽 마을 전체를 점령했다. 한때 영국 면적만큼의 영토를 차지했던 IS는 바구즈를 끝으로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최후까지 남아있던 IS 전투원 수백명은 어린이를 인간방패로 삼고 자살 폭탄 테러를 벌이는 등 마지막까지 극렬하게 저항했다고 USA투데이가 전했다.

하지만 IS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 양대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가 여전히 반목하고 있고, 중동과 서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등 IS가 주로 활동해 온 지역의 정치 환경도 불안한 형편이다. 파와즈 게르게스 런던정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쓴 칼럼을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를 불러일으켰던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한 IS의 추종자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칼리프국의 영토를 100% 제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도 IS가 완전히 격퇴됐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고작 한 달 후인 지난 1월 시리아 북부 만비즈에서 IS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미군을 포함한 미국인 4명이 사망했다. 그가 설부터 IS 격퇴를 선언하는 바람에 미국과 동맹국이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95일 동안 무려 15차례나 IS 완전 격퇴가 임박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미뤄졌다고 미외회 전문매체 더 힐이 지적했다.

'할머니 물지마 폭행' 보고만 있던 뉴욕지하철 승객들

뉴욕 지하철에서 30대 남성이 78세 할머니를 누르다 폭행했다.



24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일 새벽 3시쯤 뉴욕 브롱스를 지나는 지하철 2호선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은 지하철에 혼자 앉아 있던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올린 영상에서 남성은 할머니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가했고 얼굴, 가슴, 복부를 연이어 가격했다.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져 1200만건 이상 조회됐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 피해자는 얼굴 등의 출혈로 다음 정류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뉴욕경찰(NYPD)은 영상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수배했고, 약 2주 뒤 검거했다. 뉴욕경찰 형사 과장 디아마트 세이는 트위터에 "폭행범이 현재 붙잡혀 구금됐다. 어떤 혐의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객차에 있던 승객 중 누구도 폭행범을 저지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객차 승객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소리를 쳤지만 남성을 제지하지 않았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반인권 범죄 멈춰야"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

의안이 22일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합의로 채택됐다.



4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8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7번째 연속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에서 인권이사회는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이뤄지는 인권 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러한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인권이사회는 또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이 인도주의 기구들의 접근을 막는 북한 당국의 제한 조치들 때문에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몰살과 살인, 강제노동, 고문, 구금, 성폭력, 종교·정치적 박해가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일반 교도소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죄를 짓지 않은 개인들에게도 가혹한 형벌이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도 더해졌다.

결의안은 유엔과 모든 국가, 특별 기구들,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된 책임규명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겨냥하기 위한 추가 제재를 이어가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추가된, 북한 안팎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인권침해를 북한이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도 올해 그대로 유지됐다.

인권이사회는 북한 주민이 인권을 향유하고 적절한 식량 접근권을 보장받으며 종교와 신념의 자유,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이사회는 또 남북 간 이뤄지는 대화의 중요성과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도 언급했다.

트럼프가 예상한 내년 대선 상대는 오루어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맞대결을 펼칠 민주당 후보로 베



도 오루어크(46) 전 연방 하원의원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미 방송 포츠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내년 대선에서 어느 후보와 상대하고 싶은지 묻자, "바이든, 샌더스, 베토와 하고 싶다"며 조 바이든(76)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77) 상원의원, 베토 오루어크 전 하원의원의 이름을 차례로 거론했다.

그는 이어 "언론은 베토를 선택한 것 같다"고 두 차례 반복한 뒤, "베토를 보면 우리는 그것(맞대결)을 꿈꿀 수 있다"라고 말했다. CNN 등 민주당 성향 언론들로부터 주목받는 오루어크 전 의원이 경선을 뚫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지 않겠느냐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측인 셈이다.

40대 신성인 오루어크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초반 돌풍 조짐을 보인다. 그는 지난 14일 대선 도전 선언 후 하루 만에 온라인을 통해 613만6천736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70. 임성택(1872-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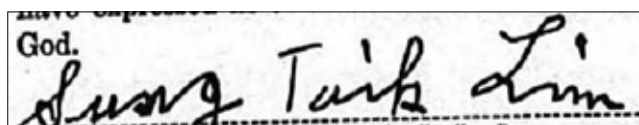
임성택은 1872년 10월 12일에 경기도 부평에서 태어났다. 그는 1900년 11월 15일에 경기도 제물포에서 10살 연하의 임성실과 결혼하였고, 1903년 4월에 그는 그의 부인과 함께 일본 마루에 의지하여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주했다. 이후 로스앤젤레스(나성)로 옮겨 1908년 1월에 그는 중가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관을 열었다. 프레노에 있던 위영민이 샌프란시스코 철도 신설에 3년간 300명에서 500명까지 고용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그의 여관은 동포의 기숙을 위한 대책이었다. 그해 4월에는 그가 샌프란시스코 지방 공립협회 경찰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이곳 제일감리교회 무어 목사가 한인들을 친절하게 교제하였고,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던 장인명, 조정열 등 한인들을 도와주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임성택이 수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러 20전이였다. 건축경비 지출에는 재목 구매비가 456달러 13센트, 목수 공전이 157달러 80센트, 철물 구매비가 17달러 10센트, 굴통 임대비가 14



스탁톤 한인감리교회

의 신분으로 김 탁 목사와 참석했다. 그렇다면 1925년에 임성택이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던 것이 틀림없다. 1926년에 임성택은 스탠포드 국어학교의 학부회 회장이었다. 그해 6월 26일 오후 8시에 스탠포드 한인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스탠포드 국어학교 방학식에 임성택이 보인다. 교장 문양목의 사회로 애국가 1절과 2절을 부르면서 개회하여 교장이 식사를 담당하였고, 여학생 정비대의 피아노 소리에 맞추어 남학생 일동이 '부모님의 은덕'을 찬양한 후 학부회 회장 임성택이 권설을 하였다. 그 후 여학생 일동의 '선생의 은혜'를 합창하였고, 남학생 일동이 배운 바 배달 5000년 역사를 차례로 나와서 감술하였으며, 김 탁 선생이 훈사를 하였고, 상품 수여에 이어 '방학노래' 합창으로 마치고 다과회가 있었다.



임성택의 싸인

1903년 하와이 1909년 중가주 디뉴바로 이주...교회에 물질로 헌신 미국남감리교연환회에서 전도사로 파송받아 1925년부터 사역 계속

1909년에 임성택은 중가주 디뉴바로 이주하였고 이듬해 디뉴바 인근 바이실리아에 거주하였다가 다시 디뉴바로 이주했고 1913년에는 디뉴바에서 복숭아와 포도 따는 일을 주선했다. 1917년 디뉴바 한인장로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했다. 당시에는 신문에 현금명단과 현금액수를 공개하였으므로 임성택이 건축헌금으로 44달러를 헌금했고 교인 중 제일 많이 헌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성권, 이치완, 오창근 및 임성택이 주동하였는데 재목, 의상, 전기 등이 의상이었고 심지어 못 한 개라도 의상이었는데 주위에 있던 사람이 그에게 너무 경솔하지 않냐고 물었을 때 거침없이 '포도원 주인에게 헌금을 청하면 되지요'라고 간단하게 답변을 했다고 한다.

달러, 도배 공전이 30달러, 마차비가 1달러, 전기동기설비가 50달러, 페인트 비가 32달러 50센트 그리고 은행이자 28달러여서 총 786달러 8센트였다. 부족액이 15달러 80센트였으니 자조 정신을 보게 된다.

교는 나성 인근에 거주하면서 한인교회를 돕던 스트리트 부인이 맡았다. 부인의 특별한 방편에 모든 교인이 만강의 희회를 표했을 뿐 아니라 노약하신 품으로 아주 열심히 함에 감사함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은 600달러였다. 그런데 이 해에 임성택이 상항을 거쳐 남가주 나성으로 이주한다. 임성택은 1930년까지 5년간 스탠포드 한인감리교회를 섬겼다.

디뉴바 한인장로교회를 건축한 1년 후인 1918년 12월에 맨타카 한인감리교회 건축에 임성택이 10달러를 헌금했고, 그의 부인 임성실이 5달러 50센트를 헌금하여 임성택 부부가 총 15달러 50센트를 헌금하였는데 제일 많이 헌금했다.

스탁톤 한인감리교회 목사 김 탁이 한국으로 방문을 하는 1929년 3, 4월에 임성택은 김필권과 함께 교회를 목회한다. 주일 예배는 물론 주일학교와 국어학교를 담당하였다. 그해 4월 태평양 대학에서 공부하는 허근을 음악 교사로 초청하여 어린이에게 찬송가를 가르쳤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누구나 다 우리말로 찬송가를 부르며 주일학교 선생의 무슨 질문에 곧잘 대답하였다. 그달에 본 교회에 우연히 참석한 신한민보 기자에 따르면 버클리의 태평양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임정구 목사가 주일 예배를 주장하였는데 정비대의 유창하게 치는 피아노에 맞추어 일반 교우들이 찬송가를 부른 후에 '눈이 있

나성 한인감리교회 전도사

1924년 10월 나성한인장로교회에 출석하던 교인 일부가 독립해 나와 버드롱 길에 있는 건물을 빌려 자유교회를 세운다. 6년 후인 1930년에 이 자유교회의 한승권 목사, 김관우, 김성권, 황성택, 박재형, 이영수, 임정수 등이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와 접촉하여 그해 7월 10일 나성한인감리교회를 설립하였다. 이듬해인 1931년 1월 4일 오후 12시 50분에 나성한인감리교회에서 나성 지방감리사인 데이비스 목사가 김성권의 기도도 계사회를 열었다. 이날 임성택은 강영승과 김 강과 함께 지방 전도사로 파송된다.

이날 목사에 황사용, 평신도 대표에

최능익, 주일학교 교장에 김해반, 유사(재정부원)에 황성택, 임정수, 광립대, 박재형, 윤으로사 그리고 박경신을 임명했다. 그해 4월에 일본 동경 한인기독교 청년회 구제부의 주선으로 이곳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과 거주하는 한인들과 청년회를 위하여 헌 옷과 기부금을 모았을 때 나성한인감리교회도 동참했다.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아이스크림 값을 저축하여 헌금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1931년 7월 4일에 나성에서 데이비스 감독이 미국 남감리교 북미 한인감리교회 지방회를 열었다. 이날 지방 전도사의 품격에 따라 강영승과 함께 임성택을 다시 파송했다. 이후에는 교회 장정에 의하여 지방 전도사는 품격뿐만 아니라 과묵 시험도 치르기로 하였다. 이날 나성한인감리교회의 예배당 건축을 결의하고 우선 3년 안에 1만 달러를 예산하고 본 선교부에 청원서를 제출토록 의결했다. 그런데 교우들이 먼저 헌금하여 한인들의 성의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임성택이 황사용 목사, 박경신, 이성례와 함께 청원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튿날인 7월 5일 주일에는 남녀 교우 150명이 모인 가운데 위의 지방회에 참석했던 황사선 목사와 임정구 목사와 감독 무어 목사와 데이비스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예배를 드렸다. 이날 무어 감독이 한인 교인으로 하여금 부흥의 정신을 가지도록 의미 있는 설교를 하였다.

1932년 9월 2일에 상항에서 미국 남감리교 연환 회회가 열렸다. 이날 임성택은 지방 전도사로 다시 파송되었다. 경건회에서 감독인 데이비스 목사는 그리스도가 교역자의 심령에 있음을 역설하면서 교역자의 정신을 새롭게 하였다. 그달 4일 주일에는 감독 무어 목사의 병환으로 총회의 클락 박사가 대신 설교를 하였다. 이 세상 사람은 육체의 욕심과 명예와 권세 등 셋을 도취할지라도 단축길을 지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시험을 이기고 정의와 박애주의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만천하 천만인의 구세주가 되었으므로 그는 한인사회도 예수의 길을 걸어갈 주장을 하였다.

그해 10월 10일에 개학한 나성 삼일 한국학교의 위원으로 임성택이 선출되었다. 위원장에 안석중이, 다른 위원으로는 한영대, 김용성, 손승조, 이영기, 정영익, 안상학, 송현영이 있었다. 교장에 황사용 목사였고, 교사에 송현영이었다.

임성택은 1968년 12월 14일에 남가주 나성에서 향년 9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부인 임성실이 소천한 지 21년 후가 된다. 슬하에 제시, 존, 폴, 데이빗 그리고 피터 등 4남 1녀가 있었다.

damien.sohn@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h3>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Y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묵상(말-금): 오전 5:30 토요새벽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아전 (장소:KDC, 킹덤빌딩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영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30(토)
미주장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부: 오후 1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기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금요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얼바인침례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영양예배: 오후 6:00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매주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YM)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장례우회: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필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리더십 코멘터리 (85)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4월에는 서랍 속에 넣어둔 비전을 꺼내라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4월의 리더가 되라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 말은 미국 태생의 영국 시인 T. S. 엘리엇(Eliot)의 유명한 시 ‘황무지(The Waste Land)’가 그 출처이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이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튼다. 겨울은 따뜻했었다. 대지를 땅과의 눈으로 덮어주고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 주었다.” 엘리엇의 ‘황무지’는 20세기에 들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생명력을 가진 것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서구인들의 정신세계를 묘사한 시이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말은 시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서구인의 생

들을 대상으로 ‘성공의 주요 요건’을 조사했는데 여기서도 85%의 사람들이 원만한 인간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에 의해서 성공을 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인간관계이다. 인간관계에 의해서 삶은 시작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생은 발전한다. 4월은 잔인한 달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달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리더가 되라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된다. 특별히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느껴야 된다. 현대인들의 복잡하고 분주한 삶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고 급변하는 세상의 영성을 지배하는 것이 크리스천이 되어야 소망이 있다. 그렇게 하려면 크리스천들이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남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시야를 넓혀야 한다.

작가 윌리엄 피터의 이야기가 있다. 한 소년이 5달러짜리 지폐를 주웠는데 그는 일생 동안 물건을 주고 살았다. 머리핀을 54,172개, 단추를 29,519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쓰레기를 주웠는데 그는 일평생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산과 들을 차단한 채 살았다. 4월은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최대의 비전을 전해주는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할 때이다.

서랍 속에 넣어둔 비전을 꺼내어 비전을 이루는 리더가 되라

영적리더의 비전이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목적과 목표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전이란 성취 가능성이 희박한 로또 당첨과 같은 희망 사항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경험하게 될 미래의 실제적인 모습이어야 한다. 비전은 현실세계에서 이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실현될 어질 결과물을 생각하는 것이다.

좋은 비전은 리더로 하여금 목표와 계획을 만들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성취 욕구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좋은 비전은 단순하고 누가 물어봐도 바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

좋은 인간관계가 성공비결, 상대 마음 잘 이해해야 충분 시간 갖고 같은 비전 공유하면 결집력 극대화

각과 정신세계를 그대로 옮김으로써 시인은 삶의 방향과 의욕을 잃은 채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현대인들의 정신적 황폐를 보여 준 것이다.

이제 4월이 되었다. 지루했던 겨울은 모두 물러가고 봄바람이 불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으로 가득하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하는 오늘날의 사회 환경은 모든 리더들에게 전인적인 리더십을 요구한다. 지금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리더십, 보다 도덕적이고 팀워크를 중시하며 비전 제시와 동기부여를 통해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계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하버드대학교의 위간(A. E. Wiggan) 박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했다.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라 실패한 사람들은 불과 15%밖에 안 되었다.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실패했다.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미국의 카네기재단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성공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조사했더니 85%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인생에 성공했다는 보고서를 받게 되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MBA 과정에서 우수기업 CEO

랑고 서로 다른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 좋은 인간관계를 성립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야 된다.

프랑스의 소설가였던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를 읽어 보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말이 나온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남의 신을 신고 보름 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상대방의 신을 신고 보름 동안 다녀 보면 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게 되고 비난할 것이나 안할 것이나 마음에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하되 판단하거나 질문, 평가, 조언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과 느낌을 공감하면서 듣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 비전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비전을 전하는 창조적 리더가 되라

어떤 사회든지 2%의 창조적 소수의 리더가 전체를 지배한다. 그런데 이 2%의 소수가 비전이 없으면 사회는 쇠퇴하고 결국 망하고 된다. 리더를 키우는 학교가 교회이

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감동시키는 특징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비전이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연합된 힘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관심이나 이권에 따라서 사람들의 응집력이 사분오열되기 쉽다. 반대로 같은 비전을 공유하면 사람들 간의 결집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웬만한 외부적인 충격과 위기는 비전이 주는 가치와 결과들로 극복이 가능하고 사람들은 합치게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좋은 비전이라도 한 순간에 공동체 전원이 같이 공유하지는 못한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되고 설득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리더의 비전은 조직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그룹 전체가 리더의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수순을 밟게 된다. 4월을 맞이해서 영적리더와 교회는 서랍 속에 넣어둔 비전을 꺼내어 그것을 단계적으로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된 날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4월은 잔인한 달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비전을 이루는 달이다.

sondongwon@gmail.com

기도/칼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다윗 왕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사나운 사자가 아니고 포악한 사울 왕도 아니었다. 바로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것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간구한 것이다. 시편 51편 11절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가 제일 무서워했던 것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었다. ‘주 앞’이라는 것은 “주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교제 단절은 곧 성령이 그에게서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다윗은 이미 알았다. 사울 왕에게서 성령의 기름부음이 떠나는 순간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잘 알았다. 때문에 그는 성령의 기름부음이 거두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다.

다윗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은 것은 성령의 감동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사울은 범죄 후에 자기변명에 급급하며 성령에 대하여 무관심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어땀했는가? 나단 선지자의 말에 즉각 회개를 하였다. 인체의 기름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했다. 그의 존재가치는 성령을 떠나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더욱 성령을 부어주신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말씀에는 모든 육체에 부여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소홀히 하기가 쉽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계시, 성령의 감화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기도 가운데 늘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살전 5:19)

bible66@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교회: 오전 9:30(토)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주일3부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령훈련: 오전 10:00(화,토)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철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철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 3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바나바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예배: 오후 1:3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찬양: 오후 7:30 금요성경: 오후 7:30 금요성경: 오후 7:3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담임목사: 임한곤 목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2: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목회서신

“그리스도께 대한 거룩한 흥미”



여승훈 목사 (베이크스펠드 아름다운교회)

세월 앞에서 인간의 육신은 점점 쇠약해져간다. 그렇게 쇠약해져가는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인생에 대한 서글픔과 허무함을 토로하며 낙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 세월 앞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 하노니 우리의 결사람은 남아 서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후4:16). 세월 앞에서 점점 쇠약해져 가는 육신을 보면 낙심하게 되

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은 영혼이 날로 날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다. 영혼에 찾아오는 부흥은 인생의 곤고함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금빛 나는 햇빛처럼 다시 일으켜 살리는 역할을 한다.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의 부흥을 그토록 간절히 찾고 또 찾았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영혼들이 그리스도안으로

로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영혼들이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날로 날로 새로워져 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영혼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부흥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시92:15)는 고백을 하였다. 육신은 세월 따라 점점 쇠약해져 가는데 그의 영혼은 더욱더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

하고 빛이 청청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다. 진액이 풍족하다는 것은 성경전체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도 부터 나오는 영적인 생명의 진액이다. 마치 강물이 흘러 흘러 가서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으로 더욱 풍족해진다. 빛이 청청하다는 말은 신앙고백에 생명력이 넘쳐난다는 뜻이다. 습관처럼 외우고 습관처럼 고백하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고백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심장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생명력 있는 고백을 한다. 그 생명력은 쇠약해져가는 육신의 약함을 잊어버릴 정도로 파워풀하다. 눈에는 빛이 나고 몸에는 활력이 솟아난다. 마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 영혼의 부흥의 핵심은 성

부 하나님이 목표로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증거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통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샘터에서 샘물이 나와서 땅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 땅은 버려진 불모지가 되고 말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영혼의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지속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져 갈 것이다. 결과로 당신의 신앙이 점점 죽어져 가고 마음이 점점 더 냉랭해져 가고 모든 생각의 중심이 점점 더 세속적이고도 이기적으로 변질되어갈 것이다. 그리스도께 대한 거룩한 흥미를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스도께 대한 거룩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짐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 대한 거룩한 흥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보라. 그

리스도께 대한 거룩한 흥미의 정도는 현재 당신의 정확한 영적 상태를 말해줄 것이다. 그리스도께 대한 거룩한 흥미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흥미를 다 잃어버린다 하여도 끄덕 없이 흔들리지 않게 할 만큼 최고의 귀중한 보물과 같은 것이다. 몸이 쇠약해져서 젊은 날처럼 운동과 여행에 대한 흥미를 즐기지 못한다 하여도 안심하라. 그리스도께 대한 거룩한 흥미는 잃어버린 세상의 모든 흥미보다 더욱 값지고 더욱 귀중한 영혼의 부흥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대한 거룩한 흥미로 영혼의 부흥을 꿈꿀 수만 있다면, 당신이 살아가는 하루 하루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스도께 대한 거룩한 흥미로 영혼의 부흥을 꿈꾸는 자가 되라.



KAPC 7기미노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개혁신학교 밴쿠버분교 청원 등 허락 KAPC 가미노회 문석호 목사 노회장 선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제 68회 가미노회가 해리슨에서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30여명의 목사 및 장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됐다. 금번 노회에서 밴쿠버성산교회 당회장 천성덕 목사가 청원한 조정윤담 목사의 위임목사 청원이 허락됐으며 스텔로나

벤엘한인장로교회와 에드몬튼 제일장로교회의 장로 청원건과 삼성교회 이재열 목사와 시냇가에 심은나무교회 김은종 목사의 목사가임 청원과 알라스카 반석교회(김준철 목사)의 교회가임 청원 건이 허락됐다.

또한 본 교단 개혁신학교의 밴쿠버 분교청원이 허락됐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문석호 목사(밴쿠버 시온성교회) △부노회장: 이경원 목사(밴쿠버 목양교회) △서기: 이진우 목사(호산나 한인교회) △회계: 천영일 목사(밴쿠버 주바라기교회) △부서기: 권혁근 목사. (기사제공: KAPC가미노회)



한미교육센터 고등학교 이후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정부정책 세미나에서 가주재활국 리사 리 카운슬러가 강의하고 있다

고등학교 이후 발달장애인 위한 한미교육센터 정부정책 세미나

한미교육센터(소장 로사장)은 고등학교 이후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정부정책 세미나를 22일 오전 10시 하나교회(박종기 목사)에서 열었다. 이날 리사리 카운슬러(Senior Vocational Rehabilitation, 가주재활국)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으며 11시부터 29시까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참여했다.

모가 자녀를 학교에 입학해 공부 시키든지, 취업을 통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학업은 일반적으로 준학사과정(AA)까지 이수가 가능하며 취업은 가주재활국에서 제공하는 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여부는 장애들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빠른 경우 프로그램 참여 후 3개월 후 결정되기도 하지만 3년이 지나도 고용이 되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리사리 카운슬러는 “가주재활국은 직업재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 카운슬러는 “장애인 자녀들을 위해 부

활할 때 기본적으로 지원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소셜번호 정도는 숙지해 언제든지 스스로 적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업이 됐을 때 첫 한달은 가주재활국에서 파견된 도우미의 도움을 100%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달은 80% 도움을 받는 등 스스로 자립해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며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게 될 때 프로그램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 카운슬러는 “장애인들이 창업을 원한다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주정부에서 장애인 창업지원에 대한 심사는 취업보다 까다로운 편”이라 말하며 창업은 발달장애보다는 신체장애 쪽일 경우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취업이 안된다 해서 자녀들을 집에만 있게 해서는 안된다”며 “어덜트스쿨에 컴퓨터클래스와 쿠킹클래스가 있는 만큼 이곳을 통해 자신의 진로준비를 모색해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말고 하나님께, 말씀에, 약속에, 은혜에 집중해서, 그집어 놓을 거 다 내놓고 씻겨낼 거 다 씻어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진밀한 교제가 이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풀리는 역사, 풀리는 역사, 만들어지는 역사가 인생 안에서 펼쳐지는 체험이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pastor.eun@gmail.com

(3면에서 계속) 그러나 인생의 문제가 있을 지라도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며 두려움, 놀람, 떨림 등등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항상 소망을, 꿈을, 내일을 말

합니다. 주변에 함께 있고픈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문제 안에서 문제를 안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와 현실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막혔으면 다른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준비해두신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인생의 문제와 현실적 사건에 집중하지



미주장신대학교 봄 사경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강사 장종택 목사, 찬양과 간증설교 미주장로회신대학교 2019년 봄 신앙사경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미주장신대)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예배음악 작곡가, 찬양사역자 장종택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2019년 봄 신앙사경회를 개최했다.

집회 동안 장종택 목사는 ‘은혜로다’, ‘다윗처럼’, ‘생명과 바꾼 주의사랑’과 같이 직접 작곡한 찬양곡을 부르면서 삶으로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증설교로 전해 미주장신대 신학생들에게 큰 도전을 주

었다. 장 목사는 저녁집회에서 일상 속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난치병으로 죽을 직전에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며 깨어난 딸 운유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생생하게 전해 감동을 줬다. 이번 사경회는 오전, 오후, 저녁, 모두 세 번의 집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눅4:38-39), ‘허언증’(삼상2:35),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시16: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장 목사는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도 같은 찬양과 복음의 원색적이고 목격된 메시지로 사경회 참석한 회중을 일깨웠다.

이상명 총장은 “신학도의 최종 목적지는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로 살아가며 그 진리의 본질을 살려내는 것이라”며 “이번 사경회를 통해 재학생, 동문 및 참석자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다시 말씀 위에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라고 이번 봄 신앙사경회에 대한 취지와 바람을 밝혔다.

미주장신대학교 체플실에 참석한 100여 명의 재학생, 교수, 그리고 일반 참석자들은 물론 실시간 방송을 통해 참여한 해외 20여 개국의 원격교육원 재학생들 모두가 말씀과 간증, 기도 찬양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기사제공: 미주장신대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가 상담학 과정이 개설됐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상담학 과정 개설 학사과정, 석사과정... 기자회견 갖고 발표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최규남 박사)가 상담학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개설했다. 최규남 총장은 “그레이스미션대학교가 전미기독교대학협의회(TRACS)로부터 지난 2월 21일 기독교상담학석사(MACC)와 학사(BACC)과정 정식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현완 박사(교무처장)는 “상담학과정이 개설된 것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한 요청들이 있었다”며 “특히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경우 다양한 상담사역을 하게 되는데 본교의 상담학 프로그램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마지막 시대 영적,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영적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했다”고 말했다.

MACC와 BACC과정을 위해 2명의 교수가 각 프로그램 디

렉터로 영입됐다. 학사는 리더아전 교수가 디렉터로, 권오균 교수가 석사디렉터로 영입됐다. 학교 측은 상담학 과정을 통해 교회를 비롯한 사역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상담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전문상담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실습과 라이선스 취득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연결을 도와주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상담학 과정 개설에 대한 특별한 부분은 마약, 알코올, 오피오이드(OPIOID) 등 중독에 관련하여 상담학과정이 기여하게 될 것이다.

김 박사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 2월 26일부로 연방법에 따라 오피오이드 위기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 정도로 약물중독 문제는 심각하게 됐다”며 “상담학 과정에 중독치료에 대해서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GMU의 학사커리큘럼은 학사와 석사 모두 동일하게 상담학 관련과목은 11과목이며 모두 현실에 필요한 과목들이다. 석사과정의 경우는 실습이 병행된다. 따라서 GMU는 선교학 박사, 목회학석사 등을 비롯해 교차문화철학박사까지 총 8개의 학위 프로그램 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들을 구비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GMU는 오는 2020년 기독교 교육학 학사(BACE) 프로그램 개설도 준비 중에 있다. 현재 석사(MACE) 프로그램은 운영 중에 있지만 기독교 교육이 살아야 사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교육철학에 입각해 학사까지 확대하게 됐다.

특히, 장학금 기회를 늘려 저소득층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학비의 최대 50%까지 적용되는 장학금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임스 구 행정처장은 “다양한 학위과정을 인가 받아 신도들에게 여러 방향을 제시할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영광”이라며 “신앙중심의 교육을 통해 교육자들을 양성하고 사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측은 4월 등록자들에게는 입학금(80달러)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east

주일학교 사역자 청빙

뉴욕 플라싱에 있는 든든교회(남일현 목사)에서 주일 학교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신앙과 맞는 신학교의 M. Div. 과정 또는 졸업(선호)했거나, 평신도로 주일학교 지도 경험자로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면 된다. 홈페이지 <http://www.epcny.org> 이메일 info@epcny.org
▲문의: (808)348-4655

치유 세미나

본지 교도소칼럼 필자 이영희 목사(TPPM 대표)가 인도하는 치유 세미나가 4월 14일(주일) 오후 1시30분부터 뉴욕 마하나임선교교회(박춘수 목사, 220 Berry Hill Rd. Syosset)에서 열린다.
▲문의: (516)921-8040

스마트폰 단체 강좌

제 84기 씨존(대표 문석진 목사) 스마트폰 단체 강좌가 3월 30일(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10분까지 플라싱에 있는 씨존 세미나실에서 열린다(163-07 Depot Rd. #B-2). 강사는 문석진 목사로 수강료는 없으며 등록비 2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 선교후원비로 사용된다. 등록자만 수강할 수 있다.
▲문의: (718)414-4848

파송선교사 모집

메릴랜드 소재 베넬교회(백신종 목사)가 파송선교사를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1)선교에 대한 비전이 분명한 자 2)선교단체에 가입된 자 3)베넬교회의 선교전략과 방향성에 동의하는 자 4)개혁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앙노선을 가진 자 5)신입 파송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는 자이며, 제출서류(<https://www.bethelchurch.org/news>)는 1)선교사 지원서 2)신앙고백서 3)선교현신 간증서 4)소속 선교단체 가입서 5)선교현턴 보고서 6)소속 담임목사의 추천서 7)소속 선교단체장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서류는 4월 21일까지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세계선교센터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이메일 접수 및 문의: cwm@bethelchurch.org



GKWPA 3월 뉴욕어머니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말씀으로 자녀 양육하는 어머니...

GKWPA 3월 뉴욕어머니기도회 가져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GKWPA) 중점사역인 세계 여성 기도운동 및 선교사역인 어머니기도회가 3월을 맞아 3월 20일 제 28차 뉴욕어머니기도회(회장 심화자 목사)가 뉴욕순복음연합교회에서 열렸다.

예배는 안경순 목사 인도로 기도 오명의 목사, 성경봉독 김성자 권사, 특송 김사라 목사 신화영 전도사, 말씀 김영식 목사, 합심기도 최근선 목사, 헌금기도 장만자 목사, 간증 정대보라 권사, 축도 권캐더린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식 목사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신6:1-9)란 제목의 설교에서 “쉐마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자신이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다”고 간증했다.

김 목사는 학생 시절 잘못을 했을 때도 어머니는 한 번도 꾸중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 이제 말 잘 들을게요, 울지 마세요’라고 말했다며, 어머니의 기도의 힘을 전했다.

합심기도는 △회개와 성령충만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 미국을 위하여 △글로벌연합글로벌뉴욕의 확장을 위하여 △회개장단과 임원들, 가정과 자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남미에 시작된 어머니

기도회 콜롬비아,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를 위하여 집중으로 기도하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어머니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4월 뉴욕어머니기도회는 4월 17일(수) 순복음연합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는 김혜정 선교사(콜롬비아)다.

한편 “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란 동일한 표어를 걸고 콜롬비아(회장 김혜정 목사), 한국대구(회장 신동숙 원장), 니카라과(회장 김연희 선교사), 엘살바도르(회장 황은숙 선교사), 과테말라(회장 박윤정 선교사)에서도 각각 진행됐다.

(기사제공: 뉴욕어머니기도회)

뉴욕장로연합회 제 65차 조찬기도회



뉴욕장로연합회(회장 김영호 장로) 제 65차 조찬기도회가 3월 21일 오전 8시 뉴욕목양장로교회(송병기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김주열 장로 인도로, 반주 안찬희 사모, 기도 남태현 장로, 성경봉독 김요한 장로, 설교 김상태 목사(주님의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예수님의 비유 해석”, 강사 이국진 목사

뉴욕교협 주최 동부개혁장신 주관 목회자세미나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이 주최하고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가 주관한 목회자 세미나 “예수님의 비유 해석”이 지난 26일 이국진 목사를 강사로 열렸다.

퀸즈장로교회 양순관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허윤준 목사(동부개혁장신 학장) 사회로 김성국 목사가 강사를 소개하고 교협총무 이은수 목사의 시작기도 후 곧바로 강의에 들어갔다.

강사 이국진 목사는 전주비전교회 담임으로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고든콘웰(Th.M), 웨스트민스터신학교(Ph.D 과정수학), 노스웨스트대학교(Ph.D)를 졸업했다.

이국진 목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으므로 목회자들은 나름대로 비유에 관한 관점이 있을 것”이라며 “



뉴욕교협 주최하고 동부개혁장신이 주관한 “예수님의 비유 해석”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의 원리와 비유를 바라보는 관점을 같이 고민해보자”고 서두를 시작했다.

이 목사는 “비유는 이 시대에 논란거리”라며 “이단들, 특히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하고 그 이유는 “비

유가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명제로 말하면 흘러 버리지만 스토리로 말하면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설교학에서 이야기의 힘을 인정하고 있다.

이국진 목사는 “예수님의 비유는 땅의 이야기로 들려주신 하늘이야기(막4:33-34)”이라

미동부 한인교협 부활절연합새벽예배

2019년 4월 21일 새벽 6시 지역별로

2019년 4월 21일 부활절을 맞아 연합새벽예배가 뉴욕과 뉴저지, 필라 등 각 지역에서 열린다. 연합새벽예배를 앞두고 각 교협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도회를 시작했다.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은 지난 18일 1차 준비기도회를 가졌으며 22개 지역별로 242개 교회가 참석한다. 다음은 지역별 예배장소와 지역준비위원장.

- ①코로나·우드사이드/뉴욕 어린이양교회/이재봉 목사
- ②엘름허스트·서니사이드/퀸즈한인교회/손한권 목사
- ③플러싱 1/뉴욕총신장로교회/안재현 목사
- ④플러싱 2/목양장로교회/임용수 목사
- ⑤플러싱 3-빛과소금교회/박이스라엘 목사
- ⑥플러싱 4/뉴욕한성교회/김정숙 목사
- ⑦플러싱 5/미주사랑의교회/권캐더린 목사
- ⑧플러싱 6/프라이미스교회/황영송 목사
- ⑨플러싱 7/퀸즈중앙교회/박성원 목사
- ⑩플러싱 8/다민족교회/심화자 목사
- ⑪후레시메도우/뉴욕천성장로교회/이승원 목사
- ⑫베이사이드 1/선한목자교회/최요셉 목사

- ⑬베이사이드 2/뉴욕실로암장로교회/이창종 목사
- ⑭베이사이드 3/초대교회/임병남 목사
- ⑮리틀넥/은혜교회/이지훈 목사
- ⑯라클랜드·웨체스터·브롱스/뉴욕백민교회/안성국 목사
- ⑰스테튼아일랜드/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웅 목사
- ⑱맨해튼/뉴욕한인교회/이용보 목사
- ⑳브루클린/브루클린제일교회/이윤석 목사
- ㉑롱아일랜드 1/뉴욕예일장로교회/강신용 목사
- ㉒롱아일랜드 2/뉴욕센트럴교회/이지용 목사
- ㉓롱아일랜드 3/뉴욕서성교회/임영건 목사

한편 뉴저지교협(회장 홍민석 목사)은 19일 주소원교회(육민호 목사)에서 1차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뉴저지지역은 13개 지역에서 지역별로는 팰팍&레오니아 14개 교회, 잉글우드&테너플라이 12개 교회, 학켄색&티넥 11개 교회, 뉴저지 중남부 30개 교회 등 총 177개 교회가 참가한다.

2차 준비기도회는 4월 3일(수) 주소원교회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뉴욕한인회, 뉴욕나눔의집에 후원금 전달

지난 3월 21일 맨해튼 뉴욕한인회 김민선 회장이 뉴욕나눔의집 대표 박성원 목사에게 쉐터 후원금 1천 달러를 전달했다. 뉴욕나눔의집은 한인 노숙인 남녀 20여 명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자립을 돕고 있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AG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 38차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장 이성달 목사, 부회장 이학용 목사 유임

AG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 38차 정기총회

하나님의성회(AG)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가 3월 19일 오전 10시30분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에서 38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이성달 목사와 부회장 이학용 목사를 유임시켰다.

1부 예배는 오조나단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이미선 목사, 설교 허연행 목사, 헌금기도 고성진 목사, 합심기도 이학용 목사, 축도 백문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허연행 목사는 다니엘 6:10을 본문으로 “창문을 열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회의는 회장 이성달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 지방회 업무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 내지선교보고, 새임원 선출, 광고, 폐회 및 식사기도 이광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AG 한국총회 정기총회는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LA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AG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 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남가주교협 이사회가 김향로 이사장집에서 가졌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웃 섬기자” 남가주교협 이사회, 임원진과 상견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한기형 목사)는 3월 24일 오후 이사회를 새로 선임하고 임원진과 각 위원장들과 함께 상견례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향로 이사장 자택에서 이뤄진 행사는 1부 예배에서 김태열 총무이사 사회로 부회장 김성대 목사의 기도, 교협 중창단의 설교, 오렌지카운티 원로목사회장 김영대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회장 한기형 목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말씀을 통해 기쁨을 가지고 감사

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가 잘 사는 자임을 강조했다. 2부는 총무 안신기 목사 사회로 회장 한기형 목사가 임원진과 각 위원장을 소개했으며, 이사장 김향로 장로의가 이사를 소개하는 순서를 갖고 서로 인사,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있을 부활절연합예배(4월 21일 6시 새누리침례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 새로운 이사로 선임된 이은용 장로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기사제공: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올바른 교회 모습...10가지 가치 강이 나침반교회 머슴교회세미나, 강사 송영선 목사

제 2회 캘리포니아 머슴교회 세미나가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열 목사)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됐다. 세미나 강사는 메릴랜드 빌립교회 송영선 원로목사가 나서 빌립교회의 비전과 사명,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그에 따른 구조에 대한 이야기 등을 진솔하게 나눴다.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발견한 10가지 가치 △오직 예수 △머슴의 도 △한 영혼의 귀중함 △목양 우선 △과정 중심 △평신도 사역 △두 날개의 교회 △본질과 비본질 △조화 △안팎이 똑같게 △그럴 수도 있지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 진행했다. 송영선 목사는 “목회사역을 통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면서 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

명을 이해하고 현재의 삶을 사명자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지를 후배 목사님들과 나누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다”고 말하며 “참석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머슴교회 세미나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해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을 중단하고 세미나에서 얻은 것을 바로 시작하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사역을 보다 발전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적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머슴교회세미나에 참석한 승광철 목사(새생명교회)는 “머슴교회세미나를 통해 교회론이 정립된 거 같다”며 “교회가 한번 흔들려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는데 세미나를 통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나침반교회에서 열린 머슴교회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빌립교회 송영선 원로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주최한 '가정을 살리는 목회, 교회를 살리는 가정'이라는 주제 목회자세미나에서 권준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가정을 살리는 목회, 교회를 살리는 가정' 한인가정상담소, 목회자세미나 개최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는 '가정을 살리는 목회, 교회를 살리는 가정'이라는 주제 목회자세미나를 19일 오전 10시 가든스윗호텔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목회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교계 치안 및 범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나와 한인사회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시연 박사(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교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권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는 “신체 및 언어적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가정폭력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함께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인 가정의 경우 심각한 폭력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권 목사는 “목회자의 경우 상담관련 라이선스 없이 교인들을 상담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전문기관으로 연결여부에 대한 판단을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APD 올림픽경찰서 정 김 수사관은 “한인타운에서만 하루에 가정폭력 신고가 약 20건이 들어오고 이중 3건은 체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가해자가 동양인인 경우는 연 128건 정도이며 이중 90%가 한인일 정도로 가정폭력 문제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이웃이 가정폭력을 신고했을 경우 한인들은 문화적인 특성상 경찰에 협조하지 않으려 하고 은폐하려는 경우가 많다”면서 목회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신분문제를 미끼로 감찰을 하며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일삼았을 때, 을 위치에 있는 배우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데 경찰은 이런 문제로 피해자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경우 오히려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자

가 영주권 취득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영주권 수속날짜보다 훨씬 더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회의 패트리샤박 변호사는 “피해자들 중에는 이민법 관련 이슈에 얽힌 경우가 많은데, 이민법 부서에서 이 문제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목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가정폭력 사례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교인들의 어려움을 교회차원에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예배시간에 기도제목 내놓고 합심기도를 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법적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에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미 가정상담소 카운셀링부 매니저는 “가정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또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가해자들 80% 이상이 과거에 그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고 전했다. 즉, 가정폭력은 세대 간 대물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 없이 양쪽 모두 치료가 필요하다, 이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문제, 신체문제, 관계문제 등의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준호 기자)



LA총영사 일본계 미국인 한국전 참전용사 초대 오찬간담회를 영사관 관저에서 열었다

일본계 미국인 한국전 참전용사 초대 LA총영사 오찬간담회 열어

김완중 LA총영사는 일본계 미국인 한국전 참전용사 초대 오찬 간담회를 21일 오후 12시에 총영사 관저에서 가졌다. 급변 오찬 간담회에는 Sam Shimoguchi “일본계 미국인 참전용사회” 회장을 위시해 Bacon Sakatani 부회장, Wallace Takata 부회장, Robert M Wada 지회장 (Charter President) 등 9명의 참전용사(배우자 2명 별도)가 참석했으며, 오찬순서는 ①일본계 미국인 한국전 참전의 활약상과 97년 이후 참전자회를 결성하여 리틀도쿄(1997년)와 임진각(2001년)에 전물기념비를 세운 공적 등에 대한 비디오 상영을 시작으로, ②한국전 참전 기억에 대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Robert Wada 지회장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록인 “강제 수용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고독으로”(From internment, to Korea, to Solitude)라는 책의

저자로서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한국전 참전 경험을 소개했다. 일본계 미국인 참전자회는 대부분 90세 이상 고령으로 지난 1월 19일 마지막 신년 오찬을 가졌으며, 임진각 참전비 등 한국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10월 마지막 순회행사로 워싱턴DC 한국전 참전비 방문행사를 계획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노리오 우에마쯔 씨는 북쪽에서 “많은 어린 피난민들을 보고도 그들을 남으로 함께 데려올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LA총영사관은 일본계 미국인 참전자회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유엔군 참전의 날(7/27)을 계기로 단체표창(대통령표창)을 본국 정부에 상신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LA총영사관)

서부교회게 게시판

주님세운교회 찬양부흥회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는 '마지막 날에' 작곡가 이천 목사 초청 찬양부흥회를 29일(금) 오후 7시20분에 갖는다. 이날 LA목사총창단(지휘 서문옥 목사)가 찬조출연한다. ▲문의: (310)325-4020

목회자 가정선교 세미나

미주가정선교회(대표 이재근 목사) 주최 제7기 목회자 가정선교 세미나가 오는 5월 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화장로교회(이동진 목사)에서 열린다. 대상은 목회자(목사, 선교사, 전도사) 부부이며 참가비는 무료. 선착순 30부부, 점심식사를 제공한다. ▲참가신청 및 문의: (562)714-0691

2019 영락장학생 모집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2019 영락장학생 모집을 한다. 자격은 미주한인기독교인으로 신앙이 돈독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서 학업수향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2019년도 가을학기부터 정규대학, 대학원 및 신학교에 재학 및 진학하는 학생으로서 학위를 취득할 자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9일(금) 오후 9시(서부시간)까지다. ▲문의: scholarship@yongnak.com

두란노 미주목회자아버지학교 LA 14기 교육

제7526차 두란노 미주 목회자아버지학교 LA 14기 교육이 오는 4월 1일과 2일, 7일 에나하임에 있는 늘푸른선교회(담임 안창훈 목사, 2216 E South St)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송병주 목사(선한정교회), 김기섭 목사(미주본부장, LA사랑교회), 서건오 목사(나성서부교회),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문의: (818)331-2481, (213)700-4689.

OCKMC 제3회 정기연주회

오렌지카운티 코리안 마스터코랄(OCKMC 지휘 강미영) 제3회 정기연주회가 31일(주일) 오후 7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연주회는 콘피도 뮤직 소사이어티 트리오, 피아노 듀오(조혜원, 김형순), 시드오브워십이 찬조 출연한다. ▲문의: (562)246-6578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

인랜드교회 안환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31일(주일) 오후 4시 30분 PCA한인서남노회 전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문의: (909)622-2324, 622-9681

KAPC 5대 총회장 이익관 목사 소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5대 총회장을 역임한 이익관 목사(대흥장로교회 원로)가 23일(토) 오후 6시40분 소천했다. 향년 96세. 고 이익관 목사 천국환송예배는 27일(수) 오후 7시 대흥장로교회(담임 권영국 목사), 하관예배는 28일(목) 오전 11시 로즈힐스 메모리얼 팍(3888 Workman Mill Rd, Whittier, CA)에서 권영국 목사 집례로 갖는다. ▲문의: 교회 (310)719-2244, 유가족 (408)828-7543

글로벌메시아찬양선교단 음악회

글로벌메시아찬양선교단(단장 노형진 선교사) 음악회가 4월 6일(토) 오후 5시 레저월드한인교회(담임 전인철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13)550-9991

월서연합감리교회 설립 40주년 기념예배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신영자 목사) 설립 40주년 기념예배가 4월 7일(주일) 오후 4시 갖는다.▲문의: (323)931-9133

그랜드캐년 탐사여행 참가자 모집

세계창조선교회(WCM)가 주최하는 그랜드캐년 탐사여행이 1차 6월 4-7일(화-금), 2차 8월 13-16일(화-금) 개최된다. 여행지는 미국의 3대 국립공원(그랜드캐년,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 및 Powell 호수, Glen Canyon Dam 등이며 창조선교전문사역자 박창성 목사가 인도한다. 출발은 로스앤젤레스 혹은 라스베가스. ▲문의: (503)330-2981, 이메일: info@wcmweb.org

“요단강 살리기” 통해 선교사역 감당한다!

(1면에서 계속)
1992년부터 1만5000명의 성지여행을 가이드 했다는 바라클라스토 어린 시절 이 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1967년 6월 전쟁 기간에 강이 폐쇄되기 전이었다. 그 전쟁에서 수자원 통제는 매우 중요했고, 그에 따라 팔레스타인 난민 수십만이 밀려들면서 요르단 인구는 1947년 45만 명에서 1975년 200만 명으로 폭증했다. 이 인구 증가로 요단강 하류 지역에서 관개농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 강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됐다. 현재 요르단의 인구는 950만

명 정도지만 또 다시 난민이, 이번에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유입되면서 급증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요르단은 “인구 대비 난민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라고 보고하고 있다. 주민 1000명 당 난민수 89명 수준이다. 주민 1000명 당 난민 173명인 레바논만 요르단보다 앞선다. 켈링과 그의 가족(그리고 요르단 인구의 83%)처럼 이 난민의 다수가 물 부족이 심각한 이 요단강 하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 물 부족 현상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국제물관리연구소(IWMI)는 ‘요단강 하류지역 프

로젝트’는 역사적으로 지방정부들과 국제원조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와 건조지역 증가는 계곡의 취약한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인간만이 강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이 계곡은 5억 마리의 이동하는 새들에게 중요한 중간 기착지인데, 그 중 많은 조류가 위험에 빠져 있다. 요단강은 사해의 중요한 수원인데 흘러들어오는 강물의 양이 감소하면서 그 수위도 해마다 가라앉고 있다. 에코피스의 이스라엘국장 기드온 브롬버그는 “Yale 360” 기사에서 “강이 완전히 말라버리

지 않으려면 농업 유출수, 생활 오폐수, 염수로 바뀐 샘물, 양식으로 오염된 폐수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오염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에코피스는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 요단강의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에코피스는 현지 및 국제 교회투어 그룹의 방문을 요청하고 있다. 그 직원들은 요르단의 위기와 그 대처 방안을 소개한다. 켈링은 에코피스의 도움을 받아 지역 크리스천들에게 창조세계를 보존해야 하는 신학적 이유들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지역교회 차원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구체적으로는 성경의 그 강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한 요단강의 회복을 잠재적인 평화의 건설로 본다. 요단강을 회복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라클라스토는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요단강의 건강은 민족갈등, 생태계, 그리고 정치 분쟁과 생생하게 엮여 있다. (15면으로 계속)

“국가인권위가 생명경시 사상 퍼뜨리고 있다”

동반연 동반교연, 국가인권위 비판 논평 발표하고 낙태죄 폐지 반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국가기관이 무책임하게 생명경시 사상을 퍼뜨리고 있다”며 비판 논평을 발표했다.

동반연은 23일 발표한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논평에서 “국가인권위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

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국가인권위가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잡혀 태아의 생존권을 짓밟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 금지법이 잠재적인 생명으로서의 태아에게 일방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고, 권리의 주체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은 열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인권위의 주장에는 심각한 생명경시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반연은 또 “인권위가 가장

약자인 태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살인 합법화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잘 태어나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성을 지원하고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설 및 지원을 권고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에 몰입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대신,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태아의 생존권을 짓밟고 생명을 경시하여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와 소통하는 방법 등을 알고 싶다”고 밝혔다.

선택강의에서 9개 교회 목회자들은 카페와 도서관, 복지관, 음악회 등 문화의 다양한 이름으로 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 성암교회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방과후 교실, 적은 비용으로 주민이 소통하는 ‘바오밥나무카페’,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해 만든 비영리단체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 등을 열었다. “작은 교회가 이 같은 사역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조주희 성암교회 목사는 “지역사회를 자세히 살피면 지역의 아픔과 부족함, 요구하는 부분이 보인다. 작은 교회가 지자체의 여러 사역에 협업하기 쉽다”고 답했다.

임명진 서울 복악하늘교회 목사는 평소 책을 좋아하는 점을 활용해 도서관과 카페 사역을 문화에 접목했다. 임 목사는 “무조건 도서관과 카페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자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면서 “어떤 사역이든 진정성이 발휘되기 위해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목회로 선교의 새 길 열자”

국민일보·문화선교연구원 ‘문화선교코퍼런스’ 공동 개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인공지능 시대’ 등 급변하는 문화 환경 속에서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과제와 공공성 역할, 문화선교 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일보와 문화선교연구원이 25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동송교회에서 공동 개최한 ‘2019 문화선교코퍼런스’에서다. ‘교회, 문화, 그리고 미래’란 주제로 열린 코퍼런스에 200여명이 참석했다. 코퍼런스는 기초 강의, 전제강의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공성’ ‘새로운 처치플랜팅’ ‘교회공동체를 세우는 문화선교’라는 3가지 선택강의로 진행됐다.

코퍼런스가 열린 교회 대에 배설이 시작부터 가득 채워지는 등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교단 내에서 ‘마을목회’가 화두가 된 대만에 수교장로회(예정) 통합·교신 외에도 예정 합동·백석, 기독교한국침례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교단과 지역을 초월해 참여한 목회자들이 많았다. ‘셀목회’ ‘전도 폭발’ 등의 주제가 아닌 문화목회를 주제로 한 코퍼런스에 많

은 목회자들이 모인 점은 현재 한국교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남부은샘교회 내동교회 영신교회 전주제자교회 등 14개 교회는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등 여러 명이 참석했다. 부교역자들과 함께 참석한 강진국(60) 청주 남부은샘교회 목사는 “지역에서 갤러리카페, 음악회 등 문화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체계화하고 사역자들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참석자 중 절반 이상은 중견강의, 전제강의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공성’ ‘새로운 처치플랜팅’ ‘교회공동체를 세우는 문화선교’라는 3가지 선택강의로 진행됐다.

젊은 사역자들은 노트북으로 강의를 메모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이었다. 배기훈(44) 서울 세상의소금염산교회 부목사는 “교회 문화위원회 담당 사역자로서 문화를 통해 다음세대와 소통하는 방향 등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김성인(29) 안산광림교회 전도사도 “청년들의 일상과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 다음세대

목회 실전 노하우로 건강한 교회 세우자

‘2019년 성결교회 부흥키워드 전국목회자 부부 세미나’

“담임목사와 비전과 목회철학을 공유하는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워 함께 교회 사역을 펼쳐야 한다.”(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

“다음세대가 ‘신앙의 지성’ 갖출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독교 변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박명룡 청주 서문성결교회 목사)

“디지털 성서 주석 등을 이용해 가능한 모든 목회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시켜 관리하면 유용하다.”(김진오 한빛성결교회 목사)

지난 18-20일 충남 서산의 서산성결교회에서 열린 ‘2019년 성결교회 부흥키워드 전국목회자 부부 세미나’에서 쏟아진 목회 조언들이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윤성원 목사) 국내선교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초교파로 구성된 강사진 22명이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 노하우’를 주제로 강연했다. 세미나에는 기성총회 소속 목회자 부부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는 18일 첫날 주 강사로 나섰다. 이날 강연에서 이 목사는 교회의 성장 과정에 맞춰 성도들과 함께 목회 프로그램을 세워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는 “교회가 성장할수록 초기 구성원들이 기독교를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수록 체계적인 소통으로 갈등을 줄이고 화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의사결정기구는 간결하게 하되 성도들이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편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건강한 목회와 교회 성장을 위해선 기독교 변증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명룡 청주 서문성결교회 목사는 둘째날 강연에서 기독교에 반대 입장을 가진 ‘안티 크리스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도 집례한 경험을 소개했다. 박 목사는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

려면 기독교가 지성에 근거한 신앙임을 가르쳐야 한다”며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변증을 가르친다면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매체, 축구 등 다양한 접촉점을 활용한 목회 사례도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김진오 한빛성결교회 목사는 웹 프로그램을 활용한 목회 자료 관리를, 최일만 성암중앙성결교회 목사는 축구를 활용한 사역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2박 3일간 주 강사 강연뿐 아니라 선택 강의, 조별 목회 나눔에 참가해 각자의 고민과 목회 팁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기성총회 국내위원회는 이들의 목회 충을 털어주기 위해 교회 차량 및 전도 지원금, 설교 자료 등을 추첨을 통해 전달했다.

윤성원 총회장은 개회예배에서 “목회 현장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겠으나 낙심치 말고 바라는 바를 말씀 앞에 자신의 가치관과 선입관을 바꿔 새롭게 변화돼 새 역사를 쓰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한기총만 방문하나

“1000만 크리스천 뜻 모아달라” … “보수에 치중 행보” 우려

한국교회와 소통하기 위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행보가 보수·우파 일부에만 치우쳐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선라이프가 25일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 황 대표는 최근 한국교회 연합기관 중 보수 성향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만 방문해 친분을 과시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일 전광훈 목사를 만나 “좌파의 폭정을 막아내고 경제를 살려 민생을 회복하겠다”며 “목사님들이 1000만 크리스천과 뜻을 모아 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200석을 확보하면 나라를 바로 세울 기반이 마련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면 이 국가가 해체될지도 모른

다는 위기감을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연합기관 중 진보 성향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이홍정 목사)와 중도보수 성향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등은 방문하지 않았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한국교회 연합기관 등이 모여 있는 종로5가를 찾을 때 보수·진보 구별 없이 방문했던 것과 차별되는 행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회찬 대표는 각각 지난해 11월 1일과 14일 한기총과 NCCK를 잇따라 찾았다. 이홍정 목사는 “황 대표 측으로부터 NCCK를 찾아오겠다는 연락 등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 측은 자유한국당 내에 한국교회와 소통을 담당할 뚜렷한 창구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국가조찬기도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이혜훈,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각국 주요 정치인이 참석하는 자리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은 빠진 것이다.

황 대표는 지난 1월 대한민국사랑운동본부(대표회장 박종철 목사)의 1300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이 단체는 미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새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와 다른 단체다. 황 대표가 제1야당을 대표하는 만큼 정치성향 일치 여부를 떠나 한국교회 주요 기관·단체들과는 두루 소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생명보호 차원서 올바른 결정 내리길”

‘낙태죄 대안 마련,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생명운동연합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낙태죄 대안 마련,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결정과 생명·성윤리의 재정립을 촉구했다.

배인구(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국가는 태아든 영아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

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현행법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정신질환, 강간,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임신 등 일정한 범위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의학 발달로 20주에 출산한 미숙아도 인큐베

이터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됐는데, 역설적이게도 같은 처지에 있는 태아를 낙태로 죽이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드러나지 않게 낙태시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낙태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한 건도 없다고 해도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 차원에서 형법에선 반드시 처벌이 규정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태는 배아윤리 등 다른 생명윤리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인간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태아를 보호

하는 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엄수희 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은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가 줄어들다는 분명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낙태를 비범죄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엄 부소장은 “낙태 후 여성에게 사라지지 않는 트라우마, 죄책감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지도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함수연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도 “낙태 문제에선 태아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

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의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낙태를 줄이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존중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낙태죄를 그대로 둔 채 임신에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 동등한 책임을 지우며 건전한 성윤리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길수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태아를 위협에 빠뜨리는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회의 생명존중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학교현장에서도 성적

호기심만 자극하는 단순 성교육에서 벗어나 생명의 소중한 가치와 책임감을 알리는 생명보호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도 “낙태 이슈에 있어 남성들이 수동적 입장을 취하는데, 임신의 한 주체인 남성도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한 이들에 대해선 국가 차원에서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기/고

플 정 목사 (SF GIM교회)

3월 21일자 미국의 언론 SFNewsFeed.us지는 “Community Leaders Voice Concerns About Human Rights and Nuclear Weapons in Korea(한국의 인권과 핵무기에 관한 미국 지도자들의 목소리)” 제하로 다음의 내용을 보도했다.

3월 20일 캘리포니아의 UC 버클리 대학에서 T. J. 펄프 UC 버클리대 교수의 사회로 한미 동맹과 관련된 양국대사의 “대사들과의 노변대화” 주제로 토의가 있었다.

Harris와 Cho는 처음에는 문재인과 도널드 트럼프의 대화의 의제가 처음 이슈로 진행되었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인권과 기독교 신앙의 탄압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UN보도를 인용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지역 정 목사는 “Freedom과 Truth(자유와 진리)라는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는 질문을 조윤제 주미 대사에게 던졌다”고 자세히 보도했다. “그는 이 지역의 Korean-American 목사로서 한반도 전역에서 자유와

진리가 유지되어지도록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다. 모든 한국인 특히, 한반도에 신앙의 자유와 함께 자유의 가치가 번영되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 특히, 북한은 외부 세력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끼리만의 평화통일을 제안해왔다고 전했다. 그리고 조 대사의 “남북 상호 변명과 한반도 평화 재통

일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SFnewsfeed.us지는 이러한 한반도 평화통일 뒤에 숨겨진 의제가 있다는 것에 매우 우려가 된다고 전하면서, 주한미국 해리스 대사가 발표한 “북한은 최근 끔찍한 인권 학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UN

인권국의 최근 보고를 말했다. 정 목사는 이어 “한반도 평화 통일은 숨겨진 위장의 의제라 될 것이다. 오히려 위장된 의제라 가짜 평화가 제안될 것이다. 그들의 사회주의 체제는 기독교 교회가 계속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한국과 세계한인 기독교 디아포라스에는 6만

여개 이상의 교회가 있으며, 한국에는 천만명의 기독교 신자가 존재하며, 그들은 진리와 자유를 유지하는 성경적인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자유가 없는 북한은 끔찍한 인권 탄압의 숨겨진 의제, 국제사회의 개입을 불허하며,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이념을 갖고 있다. 사회주의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인권을 탄압하

고 있다. 미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로 이렇게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평화통일이 상당히 격정된다. 북한 당국은 종교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기독교인들을 철저히 억압하고 박해하고 있다. 만약 북한주민이 성경을 소지하게 되는 것이 발견만 되

SFNewsFeed.us, “한국의 인권과 핵무기에 관한 미국 지도자들의 목소리” 보도

지가 있는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되어, 지적받은 “북한의 인권과 함께 한국교회가 자유롭게 기독교 가치관으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교회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실망스럽게도 이에 대한 답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증거가 포착되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SFnewsfeed.us지는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도 없고, 인권의 자유가 없는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위장된 포장을 하여 가짜로 한반도 평화통일로 선동하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보도했다.

또한 SFnewsfeed.us지는 이날 논평과 함께 평화문 토크시위에 사용한 “연방제 실현하여 평화통일 이룩하자”, “북쪽은 우리의 미래로 희망이며 삶이다”, “사회주의가 우리의 답이다”라는 한글로 된 광화문 촛불시위 사진도 게재했다.

교도소 선교칼럼 (57)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ABC 사역 설립자(ABC Ministries)(하)

“선교계획서”-조지 메들리 목사

[1722호에서 계속] ABC 사역은 훗날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세운 계획이지만 출소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도소 안에서 산 물건을 돈이 없어 아무 물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동정심과 관용 그리고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

결국 나는 예수님께 보내는 편지형식으로 40장의 선교계획서를 세웠다. 18세의 롬메이트에게 성경말씀과 그 선교계획서를 날마다 읽어주었다. 어느 날은 두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나와 롬메이트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선교계획 내용 중의 하나는 “저의 어리석은 말을 멈추게 도와주소서”라는 것이었기에 내가 하는 말에 조심하기 시작했다. 한번은 나도 모르게 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욕을 멈추라고 하셔서 열린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화가 날 때 나는 마음속으로 욕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내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마음속의 생각도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안과 밖을 모두 깨끗이 해야 했다.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계시였다. 결국 나는 내 마음속에서도 욕을 멈출 수 있었다. 예전에 조울증과 정신 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많은 양의 약들을 복용해야 했다. 게다가 16년 동안 메탐페타민과 코카인, 헤로인을 사용한 나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후 어떤 마약이나 약물도 단호히 끊기로 결심하고는 약을 배달하는 손수레가 나타났을 때 거절용지에 서명했다.

그러나 원래 충동적이고 예상하기 힘든 내 행동 때문에 내 별명은 시한폭탄이었다. 그래서 교도관들은 내가 약을 먹지 않으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걱정했지만 나에게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기에 약 없이 새로운 삶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후, 너무 오랜 시간 헛된 것을 위해 낭비했다는 자책감이 시달려서 괴로웠다. 주님을 섬기려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이다.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으려고 과거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여 실망하고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하루는 이런 마음을 한 남자와 나누었을 때 그가 격려의 말을 했다.

“하나님의 변화 프로젝트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헤리티지 기독교인 센터(지금 은 토기장이의 집이라고 한다)에서 재소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교도소 사역에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계속 후회와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았고 힘들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지만 나 스스로는 용서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 데니스 레오나드가 쓴 “저의 과거로 저의 미래를 판단하지 마세요”라는 책을 읽으며 과거로 인해 고통 받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 섬기기에 집중하며 오늘을 살기로 결정했다.

나는 출소 후 처음으로 번 돈 전부를 선교헌금으로 내

겠다고 하나님께 약속 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선교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무척 기뻐다. 그러나 한동안 나의 재정은 좋아지지 않았고 계속 경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실망이 찾아올 때마다 좌절하고 앓고 기도했다.

“하나님, 마귀를 쫓아주세요. 나는 선교 활동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겠습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마약을 하고 마약매매로 번 돈을 헌금하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심지어 설교시간에 코카인을 흡입하기 위해 화장실로 갔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담배와 술, 마약을 끊었고 다시는 입에 대지 않았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빌리는 일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당시 내가 그 정도의 신용이 있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건물 주인은 유대인이었고 내가 써낸 이력서를 읽는 30분 동안 도저히 내가 건물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가진 것은 화려한 전과 기록뿐이었다. 내게는 그 흔한 추천서 한 장이 없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바꾸셨는지 간증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께 전화해 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물어 보십시오.” 그는 전화를 걸어 목사님과 통화했다.

“나는 내 건물을 조지에게 맡깁니다. 당신도 그에게 건물을 맡겨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건물을 임대하게 되었다. 교회를 세운 후 시간이 날 때마다 가가호호 방문하여 그들을 초청한다. 어느 날 성령님이 나를 어떤 집을 방문하도록 인도 하셨고 그 음성에 순종한 결과 그들을 전도할 수 있었고 그들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가족들도 데려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귀를 여는 것을 훈련을 해야 하고 그 음성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8학년의 학력이 전부이며 몇 번의 전과기록을 가진 내가 전에는 다른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변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부모님에 대한 마음도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하게 되었으며 지극같은 삶에서 소망을 가지려면 주님이 필요하다는 소중한 교훈도 얻었다.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얻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도움의 손길을 공급하시며 내가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내 아내는 나를 돕는 내 삶의 동반자이며 배를 조정하는 닻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쳐준 아내 아이린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엡 3:20).

yonghui.mcdonald@gmail.com

선교 편지

KWFM세계여성선교사회 카이로 대회 열어 39개국 110명 참석, 회교권 복음화 이해 넓히고 영적 재충전

KWFM세계여성선교사회(회장 배점선)는 “꿈을 품은 동반자”라는 주제로 3월 7일부터 13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여성선교사 대회를 가졌다.

이번 선교사대회는 세계 39개국에서 110명의 시니어 여성선교사들이 함께 자리하여 회교권 복음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넓히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며 비전을 나누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첫째 날 저녁 집회는 “낮은 곳에 임하소서”의 저자 안요한 목사께서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목사님의 삶을 간증하시므로 깊은 감동으로 선교사들을 인도하셨다.

대회 새벽집회에서 KWFM 이상진 대표회장께서는 “꿈을 꾸는 동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교사대회에 참여한 여성선교사들이 요셉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사역지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로 도전하였다.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 서삼정 목사께서는 저녁 강사로 섬기셨다. 그는 맑은 영성과 체면적인 성령님의 은혜로 선교사들에게 도전을 주었다. “성공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예수께 바친 인생!”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주제로 어려운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여성 사역자이기를 주문하였다.

주제 강의로 KWFM여성선교사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이집트 김신숙 선교사가 “나일강의 이적”이라는 주제로 이집트의 선교역사와 여성사역자로서의 이집트 선교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

두 번째 주제 강의는 GMS 전 선교총무 김홍동 선교사가 “건강한 선교사 행복한 선교사”라는 주제로 선교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행복한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며, 전략적인 전반기 사역을 어떻게 후반기 사역으로 연결하여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것인가를 현실적으로 절감하게 하였다.

대회장으로 섬기신 KWFM여성선교사회 회장 배점선 선교사(GMS, 남서울비전교회)는 “구약 성경에 중요한 배경이 되는 이집



KWFM세계여성선교사회 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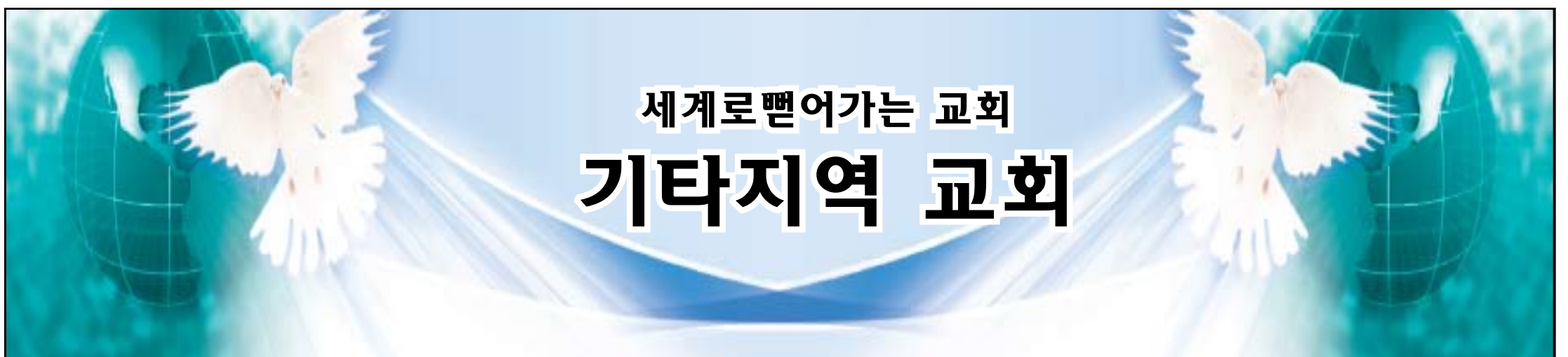


KWFM세계여성선교사회 대회 저녁집회에서 서삼정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트에서 선교사대회를 개최하여 참여하는 선교사들이 요셉의 꿈을 함께 꾸어보며 온유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삶에 발자취를 더듬으며 하나님의 섬리하시는 큰 계획을 자신의 삶과 사역 속에서 발견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애급으로 피난하셨던 상황을 여성 사역자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애급에서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귀한 선교사대회였다.

(KWFM세계여성선교사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영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Y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 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위,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모임: 오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45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전 8:00 토요일: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45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원로칼럼



박준순 목사
(중신교회 원로)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상)

뒤늦게 철이 들어서일까? 목회를 내려놓고 난 지금, 깨달음도 많고 후회도 크다. 이런 일은 이렇게 했더라면, 저런 일은 저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더 잘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솟곤 한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랫말이 생각난다. 목회도 완성이 없다. 지나고 보면 만감이 오가고 떠오르는 게 많다. 그런 면에서 이 글은 필자의 반성문이기도 하고 회고의 글이기도 하다.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낮춤 목회

필자의 경우 겁 없이 덤비고 설칠 때가 있었다. 그리고 한껏 꿈에 부풀어 높낮이도 구별 못하고 전후좌우도 돌보지 않은 채 가속페달을 밟아왔다. 내가 제일이고 내 목회가 최상의 모형이고 내가 해야 된다는 오만으로 들떠 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전과 오만은 동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호위 받고 박수 받는 황제 목회가 부럽고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오겠지’라는 망상에 빠지기도 했다. 그렇다고 꿈도 버리고 비전도 포기한 채 비굴한 처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소신은 목사의 자존심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의미 없이 굽실거리고 쫓대 없이 알랑대는 것은 가치가 없다.

포장된 겸손은 걸쭉함에 불과하다. 차라리 솔직한 교만만도 못하다. 자신의 부정직하고 은폐된 삶을 굴절된 겸손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건 오래 못 간다. 사실과 실체가 금방 드러나기 때문이다. 말이 그렇지 표리가 같고 언행이 일치된 자기 낮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남는 후회가 크고 많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세족사건을 한 점 성화로 취급하기 쉽다. 예수님을 그 일을 행하실 때 주변을 의식하셨을까? 입소문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기대하셨을까? 아니다. 그 일은 순수 그대로였고 섬김의 표본이었

다. 손양원 목사님은 나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데 아직도 내 안엔 황제 취향의 잔재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 다시 목회를 한다면 나를 낮추고 섬기고 배풀고 싶다. 양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목회를 하고 싶다.

무릎 목회

머리를 굴리고 행정의 묘를 살리고 대인관계에 성공하고 기발한 설교와 접근법으로 교인을 감동시키면 성공 목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쪽에다 정열을 투자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건 내 목회지 하나님의 목회는 아니다.

은퇴한 아무개 목사님은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준비한 선물을 당회원들에게 주곤 했다고 한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세배도 했다고 한다. 처음엔 ‘황공무지로서이’라던 그들이 그 일이 반복되자 시큰둥해졌고 결국 반기를 들어 목회자 배척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목회 대상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을 사람의 방법으로 다루고 접근하고 장악하려는 것은 금이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무겁게 다가온다. 바쁘다는 핑계, 일한다는 구실, 피곤하다,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이유를 만들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을 소홀히 했다. 허루 서너 시간을 기도했다는 앞선 이들의 기도담을 들을 때마다 ‘아, 나도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 목회가 바로 되지’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다.

돌이켜 보면 하나님과 의논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착상과 접근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 흥 만나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기도로 영성 충전 후에 해야 한다. 회의보다 세미나보다 여행보다 더 큰 것은 목회이고, 목회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iamcspark@hanmail.net



드라마 구약 (6)



김덕수 목사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담임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로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사사기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에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창세기에서 국민을 만드시고, 출애굽기에서 법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토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양새가 갖추어졌는데... 그들이 살았던 모습이 어땠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에 복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의 소식을 통해서 사사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룧기는 족보를 기록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시작했던 룧기는 생명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죽고, 죽고, 죽고로 시작했지만 낱고, 낱고, 낱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소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의 끝을 족보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왜 룧기는 족보로 끝을 맺고 있을까요? 족보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보는 실제 역사를 가장 짧게 함축하여 기록하는 역사서술의 방법이며 족보가 등장했다는 것

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족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인걸 보니,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 일까요?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룧기 다음에 오는 사무엘상하는 그 이름이 사무엘이지만, 실제 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이며,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큰 흐름을 생각하면, 룧기는 머느리가 홀서머니를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서 효도했다는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였던 다윗을 등장시키는 책입니다. 그래서 룧기는 다윗을 찾아내고는 그 이야기를 멈춥니다.

사무엘상하

다윗을 등장시킨 룧기 이후에 성경의 이야기는 사무엘상하로 흘러갑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말씀 사사인 사무엘의 등장으로 사무엘상은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원

룧기와 사무엘상하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다윗의 등장 예고(룧기)와 다윗의 등장(삼상하)

그런데, 성경은 사사시대를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시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삼상 8:6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이러한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반응이 룧기를 거쳐서 사무엘상하로 이어집니다. 오늘 룧기와 사무엘상하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룧기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아우성치던 그 사사시대를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룧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룧기는 사망소식,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다는 슬픈 소식으로 시작을 합

은 중대한 사건의 전환점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족보에서는 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야기의 주인공이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뭔가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아담의 족보 시작은 아담으로 시작합니다. 아담은 지금까지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마지막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더니 성경은 노아시대의 홍수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창세기 5장에서 족보가 등장하더니 전혀 새로운 국면의 역사로 전환되고, 족보의 마지막 사람인 노아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되더라 말입니다.

룧기의 족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사망으로 시작했던 룧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족보는 생명 탄생의 역사를 기록하다가, 마지막에 등장시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룧4:22, “오벧은 이새를 낳고 이

래 불임여성입니다. 남편인 엘가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성경은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거리가 먼 이스라엘을 한나의 모습으로 보여 내십니다. 그러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한나는 생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상 8:6-7,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었으니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15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1)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1:00 주일6부예배: 오후 2:30 주일7부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4(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침양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영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349-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주일6부: 오후 7:00 (점심예배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www.seongsil.or.kr Tel: (82)2-996-9298,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쉼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평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104-270)	승중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석동로 17길 29(잠실동)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3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thinchon.org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양평3동 501-1 www.anamj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침양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9-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성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영어로 보는 성경 (12)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2 Samuel 22:1-4

1)Then David spoke to the Lord the words of this song, on the day when the Lord had delivered him from the hand of all his enemies, and from the hand of Saul. 2)And he said: "The Lord is my rock and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3)The God of my strength, in whom I will trust;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hold and my refuge; My Savior, You save me from violence. 4)I will call upon the Lord, who is worthy to be praised; So shall I be saved from my enemies. (NKJV)

WORD & IDIOM

* on the day when the Lord ~: 주께서 ~ 하던 날에 * deliver A from B: B에서 A를 데리고 가다 * fortress: 요새 * deliverer: 인도자 * strength: 힘 * shield: 방패 * the horn of my salvation: 나의 구원의 뿔 * stronghold: 성채 * refuge: 피난처 * save A from ~: ~에서 A를 구하다. * violence: 폭력 * call upon ~: ~를 부르다

GRAMMAR

1) Then David spoke to the Lord the words of this song, on the day

그리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께 이 노래의 그 가사 그 날에

when the Lord had delivered him from the hand of all his enemies, and 주께서 그를 구원했을 때 그의 모든 적들의 손으로부터 그리고 from the hand of Saul.

사울의 손으로부터 => 그리고 주께서 그를 그의 모든 적들과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그 날에 다윗은 주님께 이 노래를 하였다.

* David spoke to the Lord the words of this songs

주어 동사 ~에게 틀(을) = 우리말의 특성상 4형식 문장처럼 해석하지만 목적어를 뒤로 배치한 3형식(s+v+o) 문장이다. to the Lord는 문장형식의 요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 on the day가 어떤 날인지를 when(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다.

2) And he said: "The Lord is my rock and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그리고 그가 말했다 주님은 이다 나의 반석 그리고 나의 요새 그리고 나의 인도자

3) The God of my strength, in whom I will trust: My shield and

나의 힘의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이다) 나의 방패 그리고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hold and my refuge: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성채 그리고 나의 피난처

My Savior. You save me from violence.

나의 구원자, 당신은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였다 => 그리고 그가 노래한 내용은 이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며 나의 인도자이시고;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신 하나님 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시며, 나의 성채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당신은 나를 폭력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2절에서 And he said:는 그리고 다윗이 노래한 것은 (: 이후의 내용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 The Lord is에서 is는 my rock부터 and my refuge: 까지 연결된 보어를 취하고 있다. * in whom I will trust 에서 whom은 The God을 가리키며 The God이 in의 실제적인 목적어이다.

4) I will call upon the Lord, who is worthy to be praised:

나는 주님을 부를 것이다 가치가 있는(의 the Lord를 수식함) 찬양받을 만한(의 worthy를 수식함)

So shall I be saved from my enemies. -> 동사 shall 주어 앞에 둔 도치강조구문이다.

그러므로 나도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 나는 주님을 부를 것입니다,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가치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적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STUDY & THOUGH

■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기 위해 여러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눈에 띄는 한 가지는 그러한 비유들 앞에 빠짐없이 사용한 '나의...'라는 표현이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나 그는 '나의...'라는 말로 모든 비유를 수식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과의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며 드러내 주고 있다. 사실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적 신앙고백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이미 그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린 피상적인 종교생활일 뿐이다.

■ The world turns away from us when we do not have the strength to give support, but God delivers us and rejoices in us to the end.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큰 구원에 대한 신자의 태도(히1:1-4)찬190장

히브리 서신의 사도는 그리스도로 완성된 마지막 구원에 동참한 자가 가질 태도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첫째, 그는 처음 들은 복음에 착념해야 합니다(1). 사도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란 없습니다. 첫 복음이 모든 생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깊으심을 두려워해야 합니다(2).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에 그것에 합당한 가장 신실한 태도를 찾으십시오. 이것을 등한히 여김은 아직

그 진가를 몰랐다는 뜻입니다.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소망을 잃습니다. 셋째, 이 큰 구원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3-4). 주가 말씀하시고 들은 자들이 확증하고 성령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 증언하신 그 구원에 합당한 응답을 갖는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입니다. 복음에 신실함으로 약속된 풍성함을 누립니다.

화 하나님에 세우신 아들(히1:5-8)찬495장

종말시대에 오신 그 아들은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첫째,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5). 완성된 하나님나라, 곧 구국의 나라, 새언약의 나라, 교회는 그 아들이 머리와 왕이시고 주이십니다.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만물과 만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둘째, 가려진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 인자였습니다(6-7). 참하나님이 참사람이 되어 하나님 같

은 사람, 사람 같은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를 통해 교회는 오르락내리락하며 더 큰 영광을 즐기니(요1:51). 셋째, 그러나 그는 만물의 주관자였습니다(8). 잠간의 고난으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곧이어 만물을 구속하여서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하십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아들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수 천사보다 뛰어난 증거(히1:9)찬403장

첫째, 성부의 유일한 사랑을 받은 독생자입니다(6). 8절의 사람은 "그를"이란 대명사 곧 성자를 가리킵니다. 사도는 성부의 사랑하는 대상이 오직 성자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천사가 가진 영광과 존귀는 오직 그 아들에게서 파생된 것이지 독자적 존귀가 결코 아닙니다. 둘째, 최고의 영광과 존귀의 왕권을 가지셨습니다(7). 잠시 동안 낮아지신 그 아들이 성부

의 계획을 최대의 낮아지심으로 성취하시고 더 높은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천사들의 주 임무는 단지 그 아들이 오신 목적인 구속 성취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셋째,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8-9). 천사들은 직무에 따라 그 아들을 섬길 뿐이지 만물을 다스릴 권한은 오직 그 아들에게서 나옵니다.

목 구속을 위한 아들의 거룩한 행위(히1:10-12)찬183장

성부의 영원한 경륜인 구속은 아들의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습니까? 첫째, 그의 고난이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낮아지심인 성육신과 죽으심은 구속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거룩의 중심이고 모든 좋은 일의 근원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 효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그

에게 속한 자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10). 아들이 거룩하게 되는 고난의 효능과 과정은 그에게 속한 성도들을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했습니다. 셋째, 그에게 나온 자와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11). 마귀와 분리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 공로가 그대로 이양됨으로 실제적인 거룩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아들 안의 거룩을 나의 삶에 이룹시다.

금 아들의 성육신하신 목적(히1:13-16)찬404장

사도는 그 아들이 성육신하신 3가지 목적을 밝히면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주장합니다. 왜 그는 성육신하셨습니까? 첫째, 마귀를 없애 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구원은 그 아들이 세상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둘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사탄의 주무기인 죽음에서 해방되게 하

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독과 죄를 대신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신자만이 그 능력을 누립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하십니다. 그 아들의 오심은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백성 곧, 언약의 백성인 교회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토 여호와, 의인을 지키시는 분(시21)찬191장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잘 아시고 적실하게 도와줍니다. 시인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첫째 전정한 도움은 부유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필요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순례의 여정길에서 어린 자녀가 넘어질까 눈길을 떼지 않는 어머니처럼

햇빛과 달빛을 염려하며 늘 그늘이 되어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늘 깨어 지키고 돌보십니다. 게으르고 약한 목자는 양을 방치해도 여호와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양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십니다. 삶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기가 버거워질 때 곁에서 도와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를 기억합시다.

드라마 구약

<14면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왕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지요. 사울은 정확한 사람들의 기준과 그 시대 사람들의 입맛에 꼭 맞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사사인 삼손과 같이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세워진 사울은 처음에는 잘 하는 듯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사울 세우셨음을 후회하실 만큼 타락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삼상 17장,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통해서 역사의 수면위로 등장한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고,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자결함으로써 전사하는 장면으로 사무엘상은 끝이 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는 다윗

이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다스리고, 후에 통일왕국의 왕으로 33년을 다스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맞세 바를 범하게 되고, 그의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여러 반역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세바(삼하20장)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병역조사를 한 후에 사울의 운역이라는 징계를 받게 됨으로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이 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며, 그 산에 앞으로 성전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무엘하는 끝나고, 성경의 다음 이야기는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 이야기부터,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까지가 열왕기 상하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세요!

dsukim@gmail.com

“요단강 살리기” 통해 선교사역 감당한다!

<11면에서 계속>

암만의 성공회 사제 조지 콤포티는 많은 지역 크리스천들이 난민이며, 일부는 너무 가난해서 요단강을 되살리는 것보다 "오늘 저녁거리를 구하려 어디로 가야할지에 더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 로카 인터내셔널(A Rocha International)의 크리스 나일로는 그와 그의 가족이 1990년대에 레바논 인근에서 유사한 환경들을 보았던 경험을 회상한다. 레바논 내전이 막 끝났을 때였다. 요단강 유역에서처럼 그곳 주민들은 전쟁과 사회불안으로 환경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나일로가 지역 기독교 학교에서 과학 교사 겸 교목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 그는 인근에 있는 '암미크'라 불리는 습지를 간직 있다. "우리가 살고 있던 데서 조금만 내려가면 되는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그 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습지였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런데 전쟁 기간 동안에 황무지가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방치됐지요. 온갖 방식으로 그 습지

가 오용됐습니다. 환경단체도 보존할 가치가 있을지 장담을 못했지요."

나일로의 마을에 있는 다양한 종교 및 민족 그룹들은 여전히 그 전쟁에서 얻은 깊은 상처와 씨름하고 있었고 그만큼 긴장이 팽배했지만, 나일로는 과학 전문지식을 활용해 그 지역 사회에서 암미크 습지를 예전으로 영광으로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나일로가 그 습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그리고 그 지역사회가 그 습지를 구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것처럼, 그는 창조세계의 보존을 세상을 회복하는 수단으로뿐만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선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식의 전환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매우 전통적이고, 기독교적인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습지를 구하는 일을 하는 기독교 선교사로 말이지요." 현재, 암미크는 생명이 살아 있는 습지이자 유명한 에코 레스토랑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찾는 여행지가 됐다. 이 습지는 2005

년에 유네스코 생물종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암미크 습지 이야기는 요단강에 희망이 돼준다. 요단강에서도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2015년에 요르단과 이스라엘에 새로운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섰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몇십년 만에 처음으로 요단강으로 깨끗한 물이 유입됐다. 에코피스는 요단강 범람 지역을 복구하고, 자연보존지역을 확장하고, 요단강 계곡의 생태시스템에 관한 학습방문자들을 겨냥한 에코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요르단 시사 분석가 필립 오디 마다나트는 이 지역 복음주의자들은 요단강을 덜 이용하기 때문에 이 강에 대한 관심도 덜하다고 말했다. "요르단의 다른 교단들과는 달리, 복음주의자들은 요단강 물 자체를 신성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오염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종교적 관심사가 못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지역 가톨릭과 정교회 신자들에게 요단강의 물은 교회의 축일과 성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성한 물이다. 일부 개신교인들은 요단강의 오염된 물 대신에 인근의 수영장에서 침례식을

한다고 그는 지적한다.

여전히, 콤포티는 그의 교구 교인들에게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을 강조하기 위한 신학적 이유들을 찾는다. "나는 창조와 물과 땅에 관해 설교합니다." 그가 말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또한 창조세계를 사랑합니다." 그는 요르단에서 요단강의 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본다. 2015년에 알-마그라스, 곧 그리스도가 세례 받은 곳으로 여겨지는 장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나일로는 성육신이 왜 우리가 물이 오염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일깨운다고 말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70%의 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 사실은 물이 왜 특별히 중요할지를 말합니다."

그는 로마서 8장이 모든 피조물의 희망의 뜻대라고 말한다. 로마서 8장은 "땅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회복될 땅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모든 피조물이 회복될 것이고 변성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인/터/뷰

VBS와 주일학교 교사 컨퍼런스 준비하는 어린이전도협회 여병현 목사

“교회학교 통해 복음 배운 어린이들, 전도자의 삶 살아내길”

“교회학교 사명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 구절처럼 복음을 통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는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성경학교(VBS)와 주일학교 교사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전도협회 여병현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많은 교회들과 교사들이 맡겨진 아이들이 복음을 통해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양육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마다 교사강습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들의 교육부서를 접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사이에 상관없이 교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충분한 교사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 목사는 충분한 교사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자 보니 교육부의 교육환경은 열악해지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아이들을 교회에서 놓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교사 확보가 돼도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교회학교 교육에 허점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52주간 운영되는 교육부서는 교사들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교재를 나눠주는 것으로 그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도사의 설교를 요약해서 사용하기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의 공통된 것이라며 코암미션과 어린이전도협회에서 함께하는 여름성경학교 준비와 교회학교 교사들의 훈련과 교육을 위한 “VBS & Sunday School Teacher’s

Conference”를 통해 교회와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교사 컨퍼런스는 여름성경학교(VBS) 준비와 교회학교 교사들의 훈련 그리고 교역자 및 교회학교 리더(Leader)들의 필요에 맞춰 강습회가 진행된다. 2019년 여름성경학교 교재로는

있고 은혜로운 찬양과 율동, 실제적인 여름성경학교 계획과 준비, 창작활동 아이디어, VBS를 위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신나는 게임, 재미있는 복음메직, 은혜로운 동화구연,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의 훈련을 위한 다양한 개인 전도법과 효과적인 분반 운영법, 어린이 제자 훈련의

마찬가지고요.”

그는 단지 컨퍼런스가 교육을 위한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접하고 배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복음을 생활화하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로 양육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세대가 변화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교회교육을 살리고 교회교육이 활성화되고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이 활발히 되는 교회교육을 세우는데 어린이전도협회가 지속적으로 쓰임 받게 되기 바랍니다.”

지역별 동 컨퍼런스는 △오렌지카운티 지역은 3월 30일(토) 엘바인 베델교회에서 △LA지역은 4월 6일(토) 세계아가페선교교회에



주일학교 문제는 불충분한 교사 확보, 관리체계 비 확립 Group Co. 침례교 VBS 교재 중심으로 컨퍼런스 강의

Group Co.와 침례교 발행 VBS 교재를 중심으로 강습회가 진행된다.

여병현 목사는 “여름성경학교가 짧은 시간에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아이들의 신앙교육과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강습회가 교회학교 기본교육에 더 충실할 수 있게 교육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여름성경학교 준비와 함께 교사들의 교육과 훈련과 예비교사들을 위해 교회학교에서 꼭 필요한 과목들만을 선정해 다양하고 실제적인 프로그램들로 계획돼 있다.

강습회 프로그램으로는 여름성경학교와 캠프 그리고 단기 선교를 위한 생동감

실제, 교회에서의 어린이 성교육, 효과적인 시청각 자료 교실, 어린이 신앙성장의 이론과 실제, 단기선교에 도움이 되는 37개 언어 웹을 통한 효과적인 선교, 소그룹 인도 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강습회를 준비했다.

여 목사는 주일학교 운영이 대형교회 중심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 아쉽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소형교회에서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어린이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은 신앙의 선배이자 부모 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그러다보니 큰 교회 쏠림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 같아요. VBS도

서 △샌디에고 지역은 5월 11일(토) 샌디에고 한빛장로교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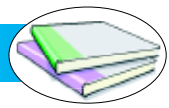
또 △필라델피아 지역은 4월 13일(토) 필라델피아 영성교회,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산호세에 있는 산호세선교침례교회에서 4월 27일 실시된다.

등록비는 1인 70달러, 자세한 내용은 (213)273-5534, (213)382-1544, 어린이전도협회 여병현 목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어린이전도협회는 여름어린이성경캠프를 CEF 캠프장에서 오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다. 여름성경캠프는 교회 연합으로 열리게 되며 여름성경학교를 대신 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새 책 소개



“선교의 꽃” 10편, 11편

교도소 선교와 내적치유 가이드

본지 칼럼 “교도소 선교칼럼”의 필자 이영희 목사(TPPM, 변화프로젝트 대표)가 최근 2권의 책을 출간했다. “선교의 꽃” 10편과 11편으로 11편은 영문판과 함께 출판했다. 특히 10편은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에 게재됐던 칼럼들을 모은 것으로 “미국 교도소의 영적 부흥과 성령의 역사라는 부제를 달았으며, 11편은 내적치유 가이드로 목회자와 상담 사역자, 평신도 리더들을 위한 기도·묵상·상담자료집이다.

이영희 목사는 “재소자들

이 그들 삶의 고통과 주님 안에서 승리에 대한 간증을 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항상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교도소 문서 선교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고 전했다.

이 책들은 앞으로 다양한 언어로 번역 출간되며, 교도소 선교뿐 아니라 교도소와 일반 기독교상담자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저자는 밝혔다.

“선교의 꽃” 10편

미국 교도소의 영적 부흥과 성령의 역사

1부 교도소와 영적 부흥-34편의 이야기, 2부 자원봉사자들의 간증-9명, “숨겨진 보배, 성령님” 하에 1장에서 7장까지는 믿음의 선진들에 비춘 설명, 8장은 치유의 간증들, 9장은 성령님에 대한 이해, 10장은 성령님의 사역과 인도하심에 대해 쓰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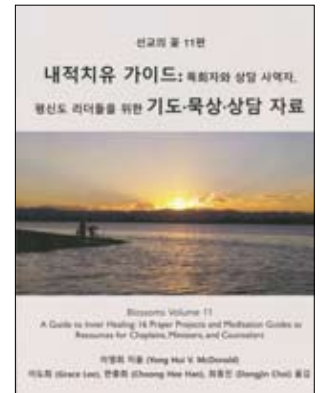


“선교의 꽃” 11편

내적치유 가이드: 목회자와 상담 사역자, 평신도 리더들을 위한 기도·묵상·상담자료

1부 묵상과 기도 하에 내적치유를 위한 묵상과 기도 등 7장, 2부 기도 프로젝트는 기도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로 8장부터 20장까지, 3부 자살충동과 상담은 21장부터 25장까지, 4부 영적 방해와 영적 공격의 특징 26장부터 28장까지, 5부 성령님에 대한 이해, 6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6파트로 설명, 7부 영적 리더들을 위한 가이드 등으로 돼있다.

(유원정 기자)



고 박재호 목사 추모예배

브라질의 복음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시고 미주찬송가공회 회장, 세계기독언론협회 회장, 미주웨슬리언연합회 회장,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성결월드미션 총재를 역임하시며 미주 한인교계를 두루 섬겨 오시던 박재호 목사님이 지난 24일 향년 8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별세하셨습니다. 상파울에서의 장례예배는 28일(현지시간) 오전 10시 섬기시던 새소망교회에서 열립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추모예배를 드립니다.

- 일시** 2019년 3월 29일(금) 오후 2시
- 장소**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 연락처** (909)276-0011(이윤수 목사), (213)383-2345 (크리스천 위클리), (213)503-1063 (김용섭 장로)

- 설교** 송정명 목사(미주 성시화 운동 대표회장)
- 조사** 서종천 목사(크리스천 투데이 발행인), 이상복 목사(미주웨슬리언연합회 회장), 박용덕 목사(예성 미주총회장)

주최(무순)

성결대학교 미주서부동문회(회장 이윤수 목사), 세계기독언론협회(회장 임승래 장로) 미주찬송가공회(회장 오성애 권사), 미주웨슬리언연합회(회장 이상복 목사), 미주성결교회(총회장 최경환 목사)

